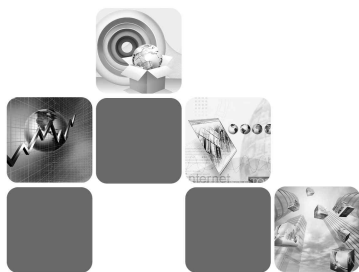


2021-2호

# 월간 ICT 산업 동향





# Contents

## I. 수출 동향 .....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 II. 트레이드 GPS ..... 28

1. 비대면 환경에 따른 ICT 수출 관심 품목 조망 ... 29
2. 비대면 시리즈① 공기청정기 ..... 34
3. Ex-Briefing ..... 39

## III. 부록 ..... 42

1. ICT 생산 통계 ..... 43
2. 2021년 1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44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 51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57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 58





# I

## 수출 동향



## I 수출 동향<sup>1)</sup>

### 1 개요

□ '21.1월 ICT 수출은 163.0억 달러(21.7%↑), 수입은 107.4억 달러(21.7%↑) 기록

- (수출)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대비 21.7% 증가한 163.0억 달러로 1월 수출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

※ 역대 1월 ICT 수출 상위 실적(억 달러) : (1위) '18년, 176.9, (2위) '21년, 163.0 (3위) '19년, 144.3

-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증가한 반면 D-TV 등이 부진했으며, 국가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수출이 증가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87.8 (20.5)	20.7 (32.1)	12.0 (76.3)	0.8 (△46.7)	9.9 (2.6)	163.0 (21.7)
중국(홍콩)	50.6 (19.9)	8.3 (18.3)	4.5 (171.9)	0.0 (△61.3)	3.8 (10.8)	74.1 (23.7)
미국	7.1 (17.7)	0.2 (21.9)	2.9 (95.9)	0.0 (△30.6)	2.4 (△28.3)	19.0 (23.9)
일본	1.0 (17.2)	0.1 (△46.6)	0.2 (73.9)	0.0 (△97.5)	0.4 (25.0)	3.4 (4.2)
EU	2.0 (28.2)	0.2 (△30.6)	0.6 (19.6)	0.2 (△11.0)	1.3 (5.6)	9.0 (4.5)
베트남	10.7 (1.0)	11.4 (54.0)	2.9 (21.0)	0.1 (△45.2)	0.1 (96.9)	29.5 (18.9)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대비 21.7% 늘어난 10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디스플레이(2.6억 달러, △12.9%)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45.6억 달러, 21.0%↑), 컴퓨터 및 주변기기(15.8억 달러, 31.3%↑), 휴대폰(10.8억 달러, 38.2%↑) 등은 증가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34.8억 달러), 베트남(19.4억 달러), 미국(11.5억 달러), EU(4.6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55.5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ICT			전체 산업		
	'20.11	'20.12	'21.1	'20.11	'20.12	'21.1
수출	165.6	179.8	163.0	458.4	514.1	480.1
증감률	(15.8)	(24.9)	(21.7)	(4.1)	(12.6)	(11.4)
수입	103.7	106.5	107.4	399.4	446.4	442.1
증감률	(14.2)	(18.2)	(21.7)	(△1.9)	(2.2)	(3.5)
수지	61.9	73.3	55.5	59.0	67.7	38.0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 2 반도체

### 1) 수출 환경

#### □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시장 전망) '21년 반도체 시장은 비대면 수요 확대와 더불어 신규 수요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5,632억 달러로 성장세 확대가 예측(Gartner, '20.12월)
  -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 및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PC·서버 등 전방 시장 호조, 5G 스마트폰 확산, DDR5 전환, AI 기술 확대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성장폭이 두 자릿수로 확대될 전망
  - 메모리(1,465억 달러, 19.0%↑)는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온라인 스트리밍 등 비대면 환경에 따른 PC 및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D램(28.3%↑)·낸드플래시(9.4%↑) 등을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
  - 비메모리(3,555억 달러, 8.8%↑)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가 5G·IoT·무인차 등 신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그림 1-1 전체 및 품목별 반도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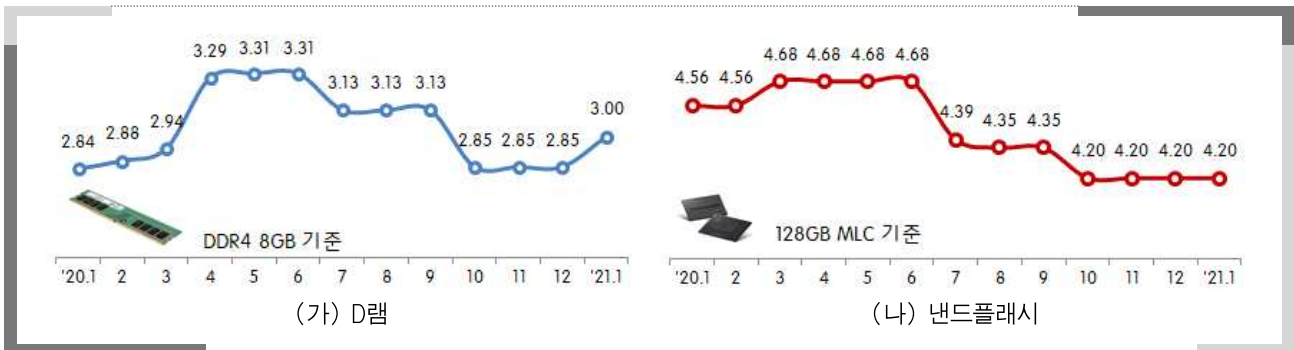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0.12.

#### □ 전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D램 가격은 반등했으며 낸드플래시도 하반기 회복이 기대

- '21.1월 D램 고정거래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지속된 수요 증가로 4개월 만에 3달러대 재진입
  - 지난해 주요 제조사의 설비투자 축소 등으로 공급은 제한된 반면, 세트 업체의 낮은 재고 수준과 더불어 PC, TV,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5월(3.31달러) 이후 처음으로 반등
    - ※ '20.하반기 지속된 D램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D램 설비투자를 축소
  - 비대면 활동을 위한 노트북 등 ICT 기기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모바일 신제품 출시 본격화,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등으로 가격은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은 4개월 연속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재고 소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하반기에 본격 상승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20.하반기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4개월 연속 4.2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예상 대비 양호한 수급 흐름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기대
  - '21.1분기 고정거래가격은 전분기 대비 5~10% 하락하나 2분기에는 보합세 회복,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트렌드포스, '21.2월)
- ※ 트렌드포스는 당초 '21.1분기 낸드 고정거래가격을 10~1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트북 판매 호조에 따른 PC OEM向 SSD 주문 증가 등 수요 개선을 배경으로 하락폭을 5~10%로 조정

**그림 1-2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고정거래가격, 2021.1.

## □ 주요국의 반도체 기술 및 생산거점 확보 경쟁 속에 자연재해로 공급 부족 심화 우려

-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 행보) 반도체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중단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중국과 더불어 최근 EU·일본·미국 등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표 1-3 주요 국가별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국가	내 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대 5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방안을 추진</li> <li>- '20.12월 독일·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 등 EU 19개국은 유럽 내 반도체 산업을 보존하고, 역내에서 반도체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합의</li> <li>- 해당 합의에 따라 최대 500억 유로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원 수단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의 반도체 산업 투자금액의 20~40%를 부담한다는 계획</li> <li>※ 이 프로젝트는 '19년부터 EU가 공동으로 추진한 공동 관심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의 일환으로 최근 BMW와 폭스바겐 등 EU 내 완성차 업체의 반도체 수급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자 추진</li> <li>- EU는 10nm 이하 초미세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nm 반도체 생산을 추진. 또한 전 세계 반도체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량의 1/5분 비중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의 반도체 개발 센터를 유치하는 등 해당 업체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경쟁력 확보 및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겠다는 복안</li> <li>- TSMC는 200억 엔을 투자해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 R&amp;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해당 센터는 후공정인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관련한 개발을 담당할 전망</li> <li>※ TSMC는 2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일본 투자계획을 결정하며 향후 생산라인을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li> <li>-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부품 및 소재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 정부도 이번 유치를 계기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시설 자국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우선 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자립 움직임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li> <li>- 현재 미국 의회에 외국 파운드리 업체라도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골자의 칩스(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연내 통과가 유력</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자립을 위해 '14년부터 최근까지 1조 위안(한화 약 17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굴기를 추진</li> <li>- '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1,400억 위안(한화 약 24조 원)을 투자했으며 전체 투자 중 70%가 반도체 설계와 디자인 공정에 집중</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한편 한파·가뭄 등 자연 재해로 일부 지역에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표 1-4 자연재해로 생산 차질 빚는 주요 반도체 기업 공장**

업 체	내 용
삼성전자·NXP·인피니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텍사스 지역 한파와 폭설로 전력회사인 오스틴 에너지는 2.16일부터 삼성전자·NXP·인피니온 등 현지 공장에 전력 공급을 중단, 정상 가동까지 약 일주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또한 수도관과 정수 시설도 피해를 입으면서 웨이퍼 공정과 화학물질 세척에 필요한 용수 공급도 중단</li> <li>※ 생산이 중단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열흘 이내에 재가동될 경우 손실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열흘이 넘어갈 경우 손실 규모는 1,000억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ul>
르네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3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이바라키현 공장 가동을 중단, 16일부터 재가동했으나 지진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생산능력을 회복하려면 21일 정도가 돼야할 것으로 전망</li> </ul>
TS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대만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2.25일부터 신주시 등 일부 지역의 공업용수 절수 비율이 7%에서 11%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 현지 공장이 밀집한 TSMC도 타격이 우려</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2) 수출 동향

### □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동반 성장으로 '21.1월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

- (품목별) '21.1월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호실적을 달성하며 전년 동월대비 20.5% 증가한 87.8억 달러를 기록
  - (메모리 반도체: 53.2억 달러, 24.9%↑)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데이터센터, PC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MCP, D램 등을 중심으로 증가. '20.9월 이후 5개월 연속 호조세 지속
  - (시스템 반도체: 29.1억 달러, 16.0%↑) 파운드리 등 수출이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성장세를 달성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중국(홍콩포함, 50.6억 달러, 19.9%↑)은 시스템 반도체(31.6%↑)와 메모리 MCP, D램 등 메모리 반도체(15.8%↑)가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베트남(10.7억 달러, 1.0%↑)은 시스템 반도체(△15.3%)와 복합부품집적회로(MCOs)가 감소했으나 메모리 MCP, D램 등 메모리 반도체(41.4%↑)가 선전하면서 하락폭을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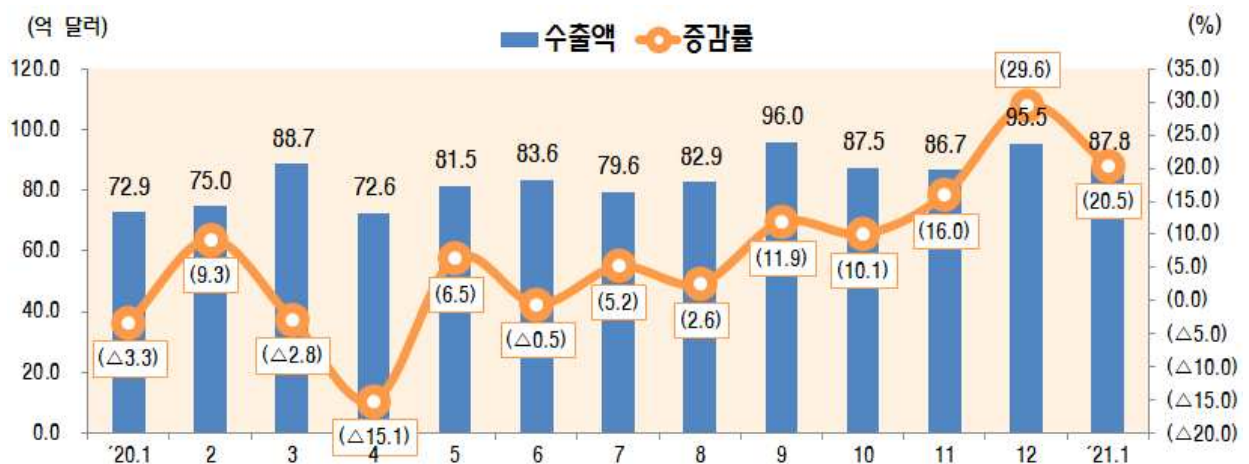
**표 1-5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	2	3	4	5	6	7	8	9	10	11	12	'21.1
반도체	72.9 (△3.3)	75.0 (9.3)	88.7 (△2.8)	72.6 (△15.1)	81.5 (6.5)	83.6 (△0.5)	79.6 (5.2)	82.9 (2.6)	96.0 (11.9)	87.5 (10.1)	86.7 (16.0)	95.5 (29.6)	87.8 (20.5)
메모리	42.6 (△10.6)	46.4 (2.9)	56.6 (△13.5)	49.9 (△14.9)	57.8 (9.8)	57.7 (△2.0)	49.7 (5.0)	50.7 (△2.3)	61.9 (9.8)	54.3 (9.0)	51.9 (7.3)	59.9 (25.2)	53.2 (24.9)
D램	19.9 (△18.3)	21.5 (2.7)	26.6 (△8.3)	27.3 (△2.4)	28.4 (20.2)	29.5 (18.1)	25.2 (16.3)	24.3 (8.1)	29.3 (24.6)	25.2 (14.2)	23.7 (8.3)	25.1 (19.0)	23.8 (19.8)
낸드	5.7 (36.9)	5.0 (34.0)	4.9 (△17.4)	5.3 (△20.5)	4.8 (1.2)	4.8 (9.5)	4.9 (△1.3)	5.0 (4.2)	5.8 (44.9)	5.1 (△1.4)	5.0 (12.2)	6.8 (77.2)	4.9 (△13.5)
MCP	13.0 (4.3)	15.1 (27.4)	20.2 (6.3)	14.4 (△9.3)	21.2 (44.9)	19.0 (△4.4)	15.7 (9.7)	17.8 (0.6)	22.6 (14.7)	19.6 (21.9)	19.2 (27.7)	23.9 (34.7)	20.7 (59.5)
시스템 반도체	25.1 (16.2)	23.8 (27.4)	26.5 (32.7)	18.5 (△13.0)	19.4 (5.2)	21.4 (6.8)	24.6 (8.1)	27.1 (15.9)	28.5 (16.8)	28.2 (14.9)	29.8 (39.1)	29.9 (44.8)	29.1 (16.0)
개별 소자	1.1 (△17.7)	1.2 (16.4)	1.4 (6.5)	1.1 (△13.2)	1.1 (△17.5)	1.2 (△6.5)	1.4 (△3.1)	1.3 (△3.7)	1.4 (9.6)	1.4 (2.6)	1.5 (12.7)	1.5 (17.1)	1.5 (30.2)
광전 소자	3.2 (△4.2)	2.7 (5.7)	3.0 (△7.3)	2.1 (△35.8)	2.2 (△31.1)	2.2 (△22.7)	2.8 (△9.7)	2.7 (△13.2)	3.0 (11.8)	2.4 (△11.4)	2.3 (△9.3)	2.9 (△1.9)	2.8 (△12.3)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1월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73.3	-28.5	39.2	중국	399.1	6.9	39.8	중국	34.2	24.3	38.9
2	홍콩	222.9	-33.6	23.4	홍콩	207.4	-7.0	20.7	홍콩	16.4	11.6	18.7
3	베트남	107.5	-1.9	11.3	베트남	115.1	7.0	11.5	베트남	10.7	1.0	12.2
4	미국	64.2	-6.7	6.7	미국	80.7	25.8	8.1	대만	7.2	143.7	8.3
5	대만	44.5	-32.0	4.7	대만	63.7	43.2	6.4	미국	7.1	17.7	8.0
6	필리핀	28.7	-48.0	3.0	필리핀	29.0	1.1	2.9	필리핀	2.4	7.5	2.7
7	싱가포르	23.2	-18.0	2.4	싱가포르	25.8	11.4	2.6	싱가포르	2.1	6.2	2.4
8	인도	14.6	14.3	1.5	말레이시아	13.5	3.3	1.3	인도	1.3	14.4	1.4
9	말레이시아	13.0	11.7	1.4	일본	10.8	-16.9	1.1	말레이시아	1.2	-4.8	1.4
10	일본	13.0	-13.4	1.4	인도	10.7	-26.8	1.1	일본	1.0	17.2	1.1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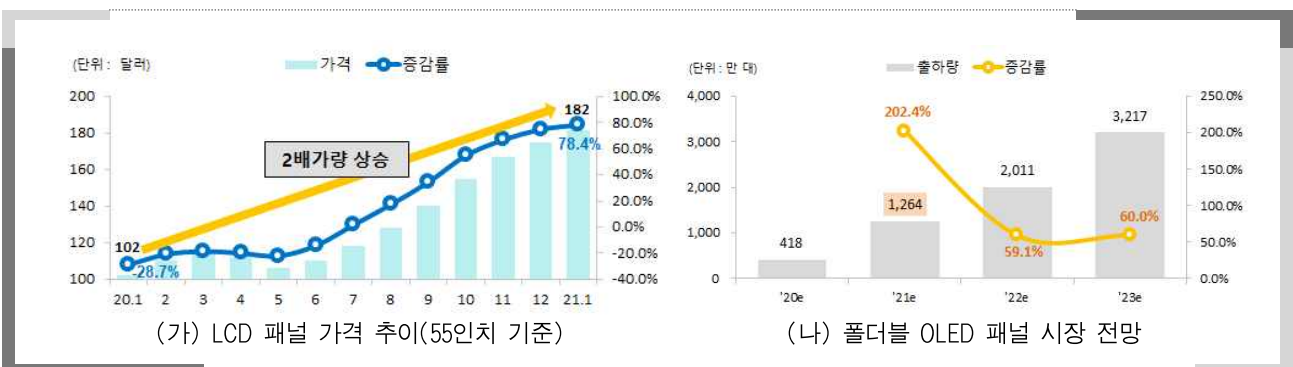
### 3 디스플레이 패널

#### 1) 수출 환경

#### □ 부분품 품귀 현상으로 LCD 패널 가격은 오름세 지속, 폴더블 패널 성장에도 주목

- (시장 전망) 전방 수요 증가, 스마트폰 폼팩터 변화 등으로 OLED 패널 시장은 상승 가도
  - (LCD 패널) 유리기관 제조업체 공장의 정전사고('20.12월), 중국 패널 업체들의 저가 공세 진정, 전방 수요 증가 등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21.1월 LCD 패널 가격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상승
  - 최근 LCD에 탑재되는 반도체 DDI 공급 부족 문제도 불거지면서 상반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흐름. DDI는 시스템 반도체 일종으로 스마트폰, TV, 태블릿PC 등 화면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 (OLED 패널) OLED TV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스마트폰(5G, 폴더블 등) 및 차량용 패널 수요가 폭증하면서 OLED 패널 시장('20년 297억 달러→'21년 380억 달러(28.0%↑))은 대폭 성장 전망
    - ※ '20년 중소형 OLED 시장(매출 기준) 점유율에서 한국(84.9%)은 중국(14.1%)·일본(0.6%) 등 경쟁국 대비 압도적 우위 지속
- 폴더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플렉서블 OLED 내 폴더블 패널의 성장세도 두드러질 전망
  -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지면서 플렉서블 OLED 패널은 '20년 196억 달러→'21년 258억 달러(31.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연합뉴스, 2.11일, 원소스 OMDIA)
    - ※ 일반 OLED 패널(동 기간, 101→120억 달러, 18.8%↑)도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플렉서블 패널에 미치지 못할 전망
  - 특히 플렉서블 내 폴더블 패널의 경우 '21년 1,264만 대→'22년 2,011만 대(202.4%↑)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며 매년 약 1,000만 대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
  - 게다가 애플이 '23년 7.3~7.6인치 크기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애플 펜슬을 지원하는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폴더블 패널 채용 증가에 따른 시장 성장이 기대

그림 1-4 LCD 패널 가격 추이 및 폴더블 OLED 패널 시장 전망



자료 : OMDIA, 2021.1. / 한국경제, 2.16. (원소스 OMDIA)

- **(4분기 실적)** 전방 수요 강세로 업황이 개선되면서 국내 패널 양사는 코로나19를 딛고 선전
  - (삼성디스플레이) LCD 패널 가격 상승, 스마트폰 주요 고객사 수요 강세 등으로 적자가 축소돼 매출액 9.96조 원(23.7%↑), 영업이익 1.75조 원(695.5%↑)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
  - (LG디스플레이) TV 및 IT기기 수요 강세, 모바일·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중소형 P-OLED 패널 수요 증가, LCD 구조 혁신 등의 전략으로 적자를 대폭 축소, 14분기 만에 최대 실적인 매출액 7.46조 원(16.0%↑), 영업이익 6,85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 □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BOE 등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국내 업체는 차세대 패널(QD-OLED, OLED 등)에 집중

- 국내 업체는 차세대 패널 생산 설비 증대를 위한 투자 및 수주처 확대 등의 전략을 구사, BOE의 인폴딩 OLED 패널 양산 성공에도 눈길
  - (삼성디스플레이) '20.8월 中 쑤저우 LCD 생산라인 전량을 약 1.2조 원에 CSOT에 매각하는 계약 체결 후, '21.2.7일 매각에 필요한 정부 승인 절차까지 완료하면서 LCD→QD로의 전환 가속화가 기대. '21.하반기부터 차세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본제품을 본격 양산할 전망
    - ※ 충남 아산에 있는 3만 장 규모의 QD 디스플레이 양산 라인(Q1)은 이미 '20.12월부터 시험 가동에 돌입한 상태
  - 게다가 동 사는 코로나19로 글로벌 노트북 수요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노트북 OLED 시장 공략에 집중. '21.3월부터는 90Hz 노트북용 패널 양산에 돌입할 계획
  -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에 OLED 패널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21.1월) 하는 등 경쟁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차량용 패널 시장에서의 행보도 눈길
    - ※ 사이드 미러 대신 문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내장 차량 후방에 대한 시야를 제공하는 사이드뷰 미러용 OLED 패널 공급
  - (LG디스플레이) P-OLED를 중심으로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 사는 지난해 GM, 벤츠 등의 고객사와의 협약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
  - 또한 늘어나고 있는 OLED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하이퐁시 모듈 조립 공장에 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OLED 패널 생산 설비를 대폭 확충기로 결정(2.7일)
  - 차세대 아이폰('아이폰 13' 가칭) 向 제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파주 E6 공장에 LTPO 라인을 구축 중인 것으로 관측. 초기 5,000장 수준에서 연내 20,000장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
    - ※ 자동차 및 웨어러블 P-OLED를 생산 중인 경북 구미 E5 라인 일부도 아이폰 전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
  - (BOE) 화웨이는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인 '메이트 X2'에 기존 공급업체가 아닌 BOE의 제품으로 변경 채택. 화웨이의 이전 제품들은 아웃폴딩 방식이었으나 이번 '메이트 X2'는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패널이 탑재될 예정
    - ※ 일각에서는 당초 SDC 패널을 조달하려 했으나 美의 반도체 제재로 수급 길이 막혀 차선택인 BOE를 택한 것으로 추정

## 2) 수출 동향

### □ '21.1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OLED를 중심으로 32.1% 증가한 20.7억 달러를 시현

- (품목별) OLED 패널이 전체 수출 성장을 주도하며 5개월 간 20억 달러 대를 상회
  - (LCD 패널 : 5.3억 달러, 10.5%↑)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둔화, LCD 패널 가격 상승, 전방 수요 강세 등으로 3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유지
  - (OLED 패널 : 12.2억 달러, 52.1%↑) 5G 확산, 폴더블폰의 대중화 및 차량용·IT기기 수요 확대 등으로 OLED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성장. LCD 패널 수출액과의 격차도 크게 벌려 눈길
  - (부분품 : 3.2억 달러, 12.3%↑) 전방 산업 시장의 호황으로 편광판(2.2억 달러, 21.5%↑) 수출 등이 선전하면서 부분품 수출은 8개월 연속 3억 달러 대를 상회하며 오름세 지속
- (지역별) 전방 수요 강세로 베트남·중국(홍콩 포함)·미국 등은 두 자릿수 대로 성장
  - 베트남(11.4억 달러, 54.0%↑)은 OLED 패널(9.7억 달러, 69.7%↑) 수요 확대로 모듈 공장向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10억 달러 대를 상회
  - 중국(홍콩 포함, 8.3억 달러, 18.3%↑)은 LCD 패널(3.8억 달러, 14.3%↑), 부분품(2.1억 달러, 27.7%↑)의 상승세와 OLED 패널(2.4억 달러, 17.3%↑)의 반등으로 성장 전환
  - 미국(0.2억 달러, 21.9%↑)은 부분품 수출(0.1억 달러, 50.4%↑) 호조, OLED 패널(0.01억 달러, △4.5%) 수출 감소폭 둔화로 2개월 연속 상승 지속

**표 1-7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1	2	3	4	5	6	7	8	9	10	11	12	'21.1
패널	15.7 (△21.3)	13.2 (△15.0)	16.4 (△4.4)	12.4 (△28.0)	12.8 (△21.1)	15.0 (△5.3)	15.5 (△21.1)	18.1 (△16.9)	21.1 (2.7)	21.2 (10.6)	21.8 (27.7)	23.9 (31.3)	20.7 (32.1)
LCD	4.8 (△44.5)	4.3 (△35.1)	5.4 (△26.9)	4.4 (△37.4)	4.5 (△36.4)	4.9 (△26.2)	5.5 (△23.4)	5.2 (△22.7)	5.5 (△3.5)	5.3 (△7.9)	5.4 (2.4)	6.1 (12.8)	5.3 (10.5)
OLED	8.0 (0.4)	6.3 (2.6)	7.7 (12.5)	5.4 (△25.2)	5.9 (△4.1)	6.9 (13.4)	6.4 (△28.9)	9.5 (△18.9)	12.2 (3.3)	12.8 (22.7)	13.4 (46.3)	14.4 (46.0)	12.2 (52.1)
부분품	2.9 (△13.0)	2.6 (△5.5)	3.3 (12.2)	2.7 (△13.1)	2.4 (△20.5)	3.2 (2.8)	3.6 (3.7)	3.4 (2.5)	3.4 (11.8)	3.0 (3.6)	3.0 (13.4)	3.4 (15.4)	3.2 (12.3)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8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1월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109.0	-19.3	49.9	베트남	101.2	21.7	48.9	베트남	11.4	54.0	54.9
2	베트남	83.2	-12.5	38.1	중국	88.5	-18.8	42.7	중국	7.9	17.2	38.0
3	홍콩	4.8	-22.8	2.2	홍콩	3.9	-18.8	1.9	홍콩	0.4	48.4	1.8
4	멕시코	3.2	-70.5	1.5	미국	2.2	-3.3	1.1	미국	0.2	21.9	0.9
5	일본	2.5	27.2	1.1	멕시코	2.0	-37.5	1.0	멕시코	0.2	8.8	0.7
6	미국	2.3	-1.6	1.0	일본	1.3	-47.4	0.6	일본	0.1	-46.6	0.4
7	폴란드	2.2	-56.9	1.0	인도	0.7	-12.3	0.4	인도	0.1	14.0	0.4
8	슬로바키아	1.3	-67.5	0.6	폴란드	0.7	-67.0	0.4	헝가리	0.1	17.0	0.3
9	말레이시아	0.9	-20.9	0.4	대만	0.7	-24.6	0.3	대만	0.1	-8.7	0.3
10	대만	0.9	-31.5	0.4	헝가리	0.6	3.5	0.3	폴란드	0.0	-42.5	0.2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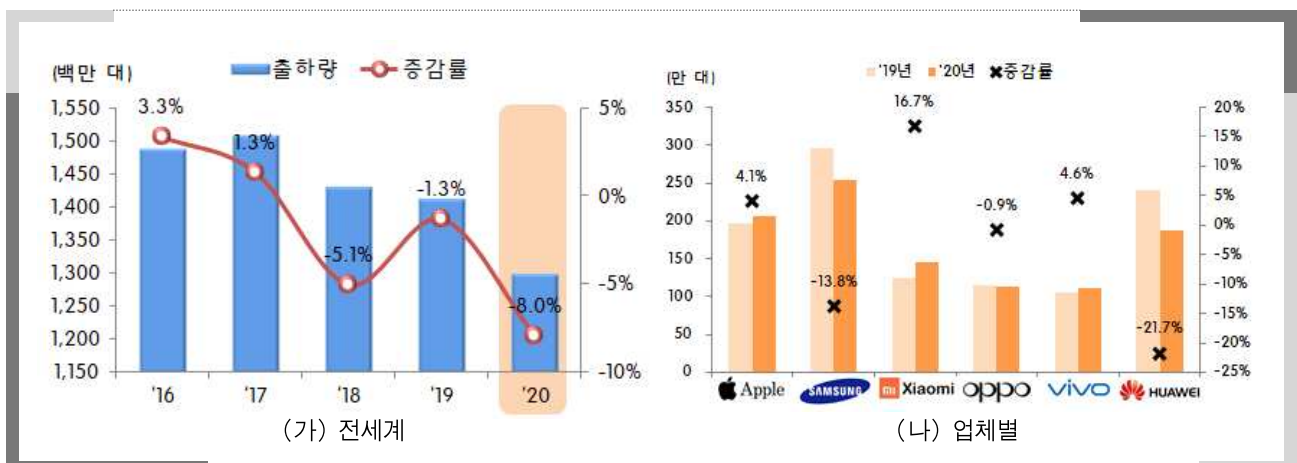
## 4 휴대폰

## 1) 수출 환경

## □ '20년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경쟁구도 변화에 주목

- (시장 규모) '20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12억 9,990만 대로 13억 대를 하회했으며 3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18년  $\Delta 5.1\%$ →'19년  $\Delta 1.3\%$ →'20년  $\Delta 8.0\%$ )(SA, '21.1월)
  -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의 여파로 1~2분기 약 17%의 하락세를 지속. 다만 3분기 이후 코로나19 확산 진정에 따른 소비 회복과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전년 수준으로 회복, 상반기 하락폭을 상쇄하면서 연간으로는 8%로 감소폭이 둔화
    - ※ 분기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 SA) : (20.1Q)  $\Delta 16.8 \rightarrow$  (2Q)  $\Delta 17.0 \rightarrow$  (3Q)  $0.1 \uparrow \rightarrow$  (4Q)  $0.1 \uparrow$
  - 지역별로는 동유럽만 유일하게 증가했으며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특히 북미·중남미 지역은 두 자릿수 이상 하락
    - ※ '20년 지역별 스마트폰 판매량 및 증감률(전년 대비, SA) : (아시아/태평양)  $\Delta 8.8\%$ , (북미)  $\Delta 10.3\%$ , (중남미)  $\Delta 10.1\%$ , (중동/아프리카)  $\Delta 4.4\%$ , (서유럽)  $\Delta 9.1\%$ , (동유럽)  $1.6\% \uparrow$
  - '21년에는 5G 제품 확산 가속, 폴더블·롤러블 등 이형(異形)폰 출시 확대,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반등하면서 성장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데스크톱·노트북·태블릿 등 PC 및 TV로의 강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차량용 시장에서의 반도체 확보 경쟁 등이 발생하면서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부품 조달 차질로 완만한 성장이 전망

그림 1-6 전 세계 및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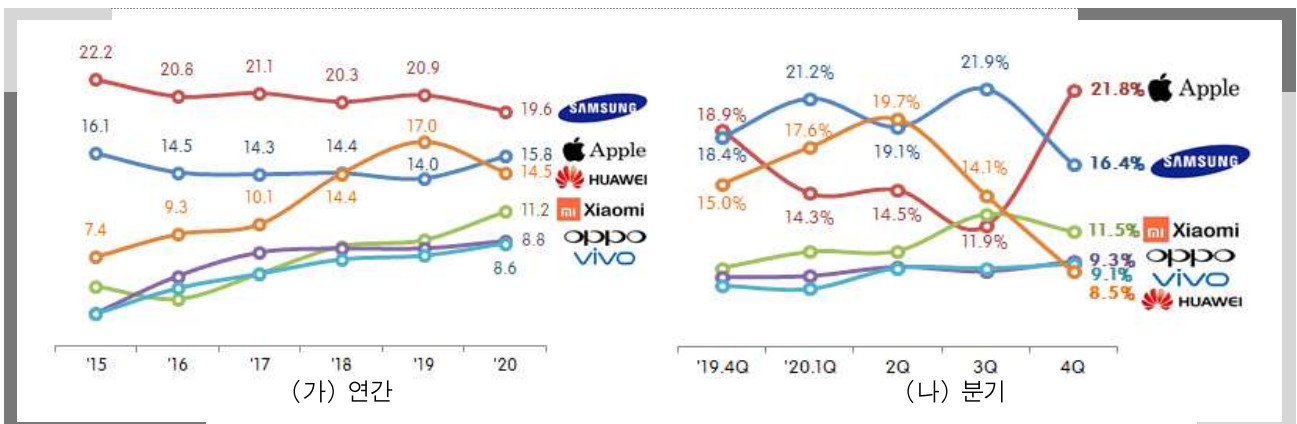


자료 : SA, 2021.1.



- (업체별) 연간으로는 업체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된 가운데 4분기 신형 아이폰 호조에 따른 애플 약진, 미국 제재에 따른 화웨이 부진 및 타 업체의 반사이익 등으로 업체간 대폭적인 시장 점유율 변화가 발생
  - (삼성전자) 4분기 16.4%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2위로 하락했으며 '11.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 '20년 연간으로는 2억 5,430만 대( $\Delta$ 13.8%)를 출하하며 1위를 수성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하량이 감소, 시장 점유율이 19.6%에 그치면서 20%대를 하회
  - '21년에는 '갤럭시S21 시리즈' 등 상반기 전략폰 조기 출시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폴더블 라인업을 통한 대중화, 'A시리즈' 등 중저가를 중심으로 한 물량 증가로 점유율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
  - (애플)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 판매 호조에 힘입어 4분기 북미·서유럽·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선전하면서 시장 점유율 21.8%로 1위를 달성했고, 연간으로도 4.1% 증가한 2억 6,600만 대를 출하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축소
  - 특히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12 시리즈'가 하이엔드 수요를 흡수하면서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 '아이폰12 프로' 제품향 증산이 예정되면서 '21년 상반기까지는 호조가 지속될 전망
  - (화웨이) 자국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제재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4분기 출하량이 42.9% 감소했으며, 점유율도 8.5%로 급감하면서 '20.2분기 1위→4분기 6위로 추락. 연간으로도 22% 급감하여 1억 8,800만 대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
  - 한편 화웨이는 '20.11월 중저가 브랜드 '아너' 매각에 이어 플래그십 브랜드 'P'·'메이트'를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
  - (샤오미)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4분기에 30.3%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3위로 올라섰으며 '20년 연간으로도 16.7% 증가한 1억 4,570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이 11.2%로 상승. 그러나 미국 정부의 금융 금지령 발효로 향후 행보는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

그림 1-7 | 전세계 스마트폰 Top 6 업체별 연간 및 분기 점유율 추이



자료 : SA, 2021.1.



## □ 글로벌 업체의 폴더블폰 출시가 잇따라 예고되면서 폴더블 시장 경쟁이 격화될 전망

- '21.2월 화웨이가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X2'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7월, 샤오미·TCL·오포가 10월에 차세대 폴더블 폰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 입지 확대를 위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
- 화웨이는 '21.2.22일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X2'를 공개. 이번 '메이트X2'는 화웨이 최초로 인폴딩 방식을 채택하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2'와 유사한 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
  - ※ '메이트X2'는 '메이트X('19년 출시)'·'메이트Xs('20년 출시)'에 이은 화웨이의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1.7~8월 중 '갤럭시Z플립' 후속작인 '갤럭시Z플립3(가칭)'와 '갤럭시Z폴드2'의 후속작 '갤럭시Z폴드3(가칭)' 등 최소 2개 이상의 폴더블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내 입지를 공고하게 해 나간다는 전략
  - ※ 일각에서는 위 2개의 모델과 더불어 '갤럭시Z플립3'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갤럭시Z플립3 라이트'와 '갤럭시Z플립3 울트라'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
- 샤오미·오포 등 중화권 업체들도 '21.10월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애플도 '21년 초 폭스콘 공장에서 클램셀 형태와 힌지로 연결돼 듀얼 스크린을 갖춘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 중
- 한편 올해 폴더블 시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여러 중화 스마트폰 제조사 및 애플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는 등 폴더블폰 시장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
  - ※ 폴더블폰 시장 전망(만 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12월) : ('19) 50→('20) 280→('21) 560→('22) 1,720

## 2) 수출 동향

### □ 완제품·부분품이 동반 증가하며 전년 동월대비 76.3% 증가한 12.0억 달러 기록

- (품목별) '21.1월 휴대폰 수출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완제품 수출 회복과 더불어 부분품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달성
- (휴대폰 완제품 : 3.8억 달러, 87.4%↑) 5G 제품을 중심으로 한 '21년 스마트폰 시장 회복 전망과 함께 '갤럭시S21 시리즈'('21.1월 출시) 등 국내 업체의 신제품 출시 효과 및 기출시 제품 수출 증가 등으로 다시 성장세로 반등
- (휴대폰 부분품 : 8.2억 달러, 71.5%↑) 글로벌 업체向 부품 공급 확대 등 해외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증가로 카메라 모듈, RFIC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고성장세 지속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베트남(2.8억 달러, 20.5%↑), 중국(홍콩 포함, 4.3억 달러, 202.6%↑), 브라질(0.1억 달러,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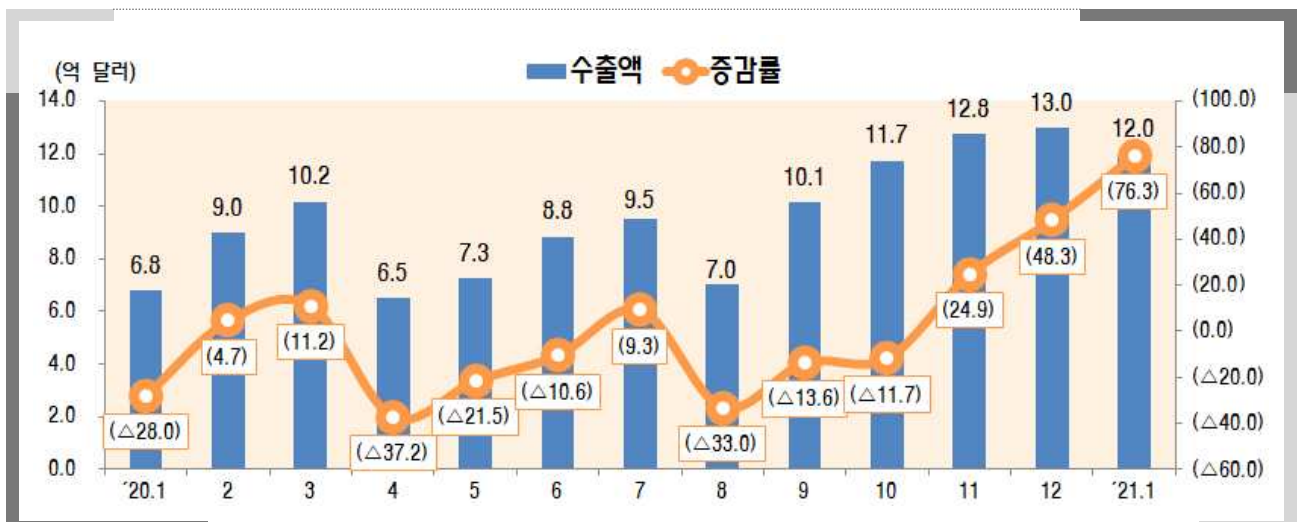
- (지역별) 휴대폰 생산 거점인 중국(홍콩 포함)·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완제품 시장인 미국 등 대부분의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
  - 중국(홍콩 포함, 4.5억 달러, 171.9%↑)은 완제품(△18.0%) 수출이 감소했으나 현지 및 글로벌 업체向 공급 증가로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202.6%↑)이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성장세 지속
  -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2.9억 달러, 95.9%↑)은 국내 업체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영향으로 완제품(136.6%↑) 수출이 급증하면서 성장세로 반등
  - 베트남(2.9억 달러, 21.0%↑)은 RFIC, PBA 모듈 등 부분품(71.6%↑)과 완제품(20.5%↑)이 동반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호조세 달성

**표 1-9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	2	3	4	5	6	7	8	9	10	11	12	'21.1
휴대 단말기	6.8 (△28.0)	9.0 (4.7)	10.2 (11.2)	6.5 (△37.2)	7.3 (△21.5)	8.8 (△10.6)	9.5 (9.3)	7.0 (△33.0)	10.1 (△13.6)	11.7 (△11.7)	12.8 (24.9)	13.0 (48.3)	12.0 (76.3)
완제품	2.0 (△52.5)	4.1 (△11.0)	4.8 (20.8)	3.0 (△43.6)	3.4 (△15.4)	3.7 (△24.4)	3.8 (20.6)	2.0 (△39.8)	3.3 (32.6)	3.7 (△16.8)	4.2 (21.0)	3.2 (△8.6)	3.8 (87.4)
부분품	4.8 (△7.7)	4.9 (22.9)	5.3 (3.6)	3.5 (△30.5)	3.8 (△26.1)	5.2 (2.8)	5.7 (2.8)	5.1 (△30.0)	6.9 (△25.9)	8.0 (△9.2)	8.6 (26.9)	9.8 (86.5)	8.2 (71.5)

자료 : IITP, KTSPi

**그림 1-8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0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1월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35.9	-29.0	29.9	베트남	32.0	16.1	28.4	중국	4.2	183.1	35.5
2	베트남	27.6	10.0	23.0	중국	29.1	7.1	25.9	미국	2.9	95.9	24.0
3	중국	27.2	-30.6	22.7	미국	25.2	-29.7	22.4	베트남	2.9	21.0	23.8
4	콜롬비아	4.7	141.8	3.9	영국	3.9	218.5	3.4	홍콩	0.3	74.2	2.5
5	캐나다	4.5	-29.4	3.7	홍콩	3.8	8.8	3.3	일본	0.2	73.9	2.0
6	홍콩	3.5	-4.6	2.9	독일	2.7	-7.8	2.4	독일	0.2	-12.0	1.8
7	독일	2.9	8.9	2.4	일본	2.1	19.8	1.8	캐나다	0.2	312.3	1.4
8	일본	1.7	-37.5	1.4	캐나다	1.9	-57.0	1.7	인도	0.1	73.5	1.1
9	영국	1.2	135.0	1.0	브라질	1.3	33.2	1.1	폴란드	0.1	191.3	1.0
10	멕시코	1.2	31.1	1.0	인도	1.1	25.9	1.0	영국	0.1	145.4	1.0

자료 : IITP, KTSPI

## 1) 수출 환경

### □ 코로나19 변수로 여전히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올해 TV 시장은 보합세를 보일 전망

- OLED TV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21년 글로벌 TV 시장은 예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
  - 올해는 LCD 패널 가격 상승, 도쿄 올림픽 부재 가능성,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시장 상황이 여러모로 불확실하나 프리미엄 미니 LED TV 본격 개화, 상반기 비대면 수요 지속 기대, OLED TV 시장 확대 등으로 '21년 TV 시장은 미미하게나마 성장할 전망
    - ※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도쿄올림픽 특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하지만 지난해 이미 스포츠 특수가 사라졌음에도 하반기 예상치 못한 비대면 수요로 반등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선불리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변동 가능성이 존재
  - (OLED TV) 지난해 OLED TV 시장(361만 대, 20.4%↑)은 '20.4분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관측(매일경제, 2.4일, 원소스 OMDIA)
    - ※ 4분기 출하량은 1·2분기를 합산한 상반기 출하량을 능가함과 동시에 '20년 연간 총 출하량의 41%를 차지
  - '21년(560만 대, 55.1%↑)에도 코로나19發 비대면 수요가 이어지면서 대형 OLED TV, 게이밍을 겨냥한 48인치 OLED TV 등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4분기 실적) 선진 시장의 펜트업 수요 강세로 전년 동기대비 실적을 상회하며 호조
  - (삼성전자) CE부문에서 QLED·초대형·라이프스타일 TV 등을 앞세운 프리미엄 판매는 성공적이었으나 LCD 패널 등 원가 상승으로 '20.4분기 매출액(13.61조 원, 6.0%↑)과 영업이익(8,200억 원, 0.03%↑)이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관측
  - (LG전자) HE부문에서 선진 시장 성장,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4분기 매출액(4.28조 원, 0.08%↑)은 8분기 만에 4조 원 대로 회복. 영업이익은 2,045억 원(102.5%↑)으로 높은 성장 기록

그림 1-9 | 글로벌 TV 시장 전망 및 OLED TV 시장 규모



자료 : 한국경제, 2.18. (원소스 OMDIA) / 매일경제, 2.4. (원소스 OMDIA)

## □ '21년 미니 LED TV가 본격 등장하면서 TV 시장 경쟁 구도에 변화의 바람 예고

- 확고한 선두 업체가 없는 미니 LED TV 新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전초전이 치열
  - ※ 미니 LED TV는 자발광인 OLED TV, 마이크로 LED TV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 대중화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차세대 TV 출시 이전 프리미엄 TV 전략 제품으로 올해 시장 성장의 원동력 역할도 기대
  - (LG전자) 'LG QNED'로 명명한 미니 LED TV 10여 개의 모델을 '21.3~5월 이내 출시할 예정. 86~99인치 라인업으로 구성해 대화면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
  - (삼성전자) 경쟁 업체보다 미니 LED TV 신제품('Neo QLED TV') 발표는 늦었으나 출시(3.18일)에는 한발 앞서며 美 시장에 先진출 예정. 55~85인치로 다소 작은 제품까지 포함해 판매할 계획
- 콘솔 게임기 출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게이밍 TV 수요가 촉진되면서 국내 업체는 프리미엄에 이어 게이밍 TV 시장에서도 각축전
  - 최근 콘솔 기기를 모니터가 아닌 TV와 연결해 즐기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지면서 업체들은 게이밍 TV 시장을 공략하며 신규 수요 창출을 모색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년 전 세계 시장에서 콘솔 게임 매출은 52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4% 성장 전망. '21년, '22년 역시 각각 6.4%, 7.7% 성장해 560.3억 달러, 60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한국경제, 1.11일)
  - (LG전자) 엔비디아의 지싱크 호환, AMD의 라데온 프리싱크 지원, OLED 강점 등을 내세운 '48인치 OLED TV('20.6월)' 등을 주축으로 게이밍 수요를 겨냥.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와 공동 마케팅까지 펼치며 게이밍 TV 시장 선점에 사활
  - (삼성전자) 55~85인치의 다양한 크기로 구성된 'Neo QLED TV('21.3월 출시 예정)'의 전 라인업에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기능을 도입해 게임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
  -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는 기존 프리싱크 기능에 HDR(명암비 최적화 기술)이 추가된 버전을 의미. 끊임없이 부드러운 게임 영상을 HDR로 지원하며 이외에도 와이드 게임뷰(21:9, 32:9 등), 120Hz 게임 모션 구현, AI 기반 게임 서라운드 사운드 등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

**표 1-11 | 국내 업체의 미니 LED TV 비교**

	삼성전자	LG전자
<b>제품명</b>	Neo QLED TV	LG QNED TV
<b>출시</b>	'21.3.18일(예정)	'21.3~5월 이내
<b>모델</b>	4K, 8K 해상도 55~85인치 10여 종	4K, 8K 해상도 86~99인치 10여 종
<b>가격</b>	1,599.99~8,999.99달러(약 175~989만 원)로 책정	2,499~9,999유로(약 333~1,333만 원)로 추정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LED 소자 대비 1/40 수준인 '퀀텀 미니 LED'를 적용</li> <li>- 퀀텀 매트릭스 테크놀로지 적용(미니 LED 밝기를 4,096단계까지 조정)</li> <li>- 네오 퀀텀 프로세서 탑재 : 16개의 신경망으로 구성된 AI 업스케일 기술로 최적 해상도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LCD TV 대비 광원 크기 1/10 수준인 '미니 LED'를 적용</li> <li>-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 적용 : 나노셀과 퀀텀닷 기술 결합해 실제와 가까운 원색을 표현</li> <li>- 30,000개 미니 LED 탑재(86형 8K 기준), 2,500개의 로컬디밍 구역으로 LCD TV의 단점인 명암비를 보완</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2) 수출 동향

## □ 대부분의 TV 생산을 해외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21.1월 수출도 46.7% 감소

- **(품목별)** 계절적 비수기, 생산 거점 재편 등으로 전 품목 수출이 크게 하락하며 역성장
  - (LCD TV : 0.02억 달러, △93.3%) 선진 시장인 미국(20.8%↑)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91.1%), 네덜란드(△64.3%) 등이 감소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주도
  - (OLED TV : 0.01억 달러, △92.9%) 미국(△73.9%), 헝가리(△58.6%), 사우디아라비아(△91.6%) 등의 감소로 3개월 연속 내림세 관측
  - (부분품 : 0.8억 달러, △28.0%) 멕시코·베트남·이집트 등의 주요 교역국 수출 감소 속, 폴란드(0.2억 달러, 108.0%↑)·인도네시아(140.6%↑) 등의 수출 호조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
- **(지역별)** 폴란드·인도네시아 등은 수출 호조가 지속되나 멕시코·베트남 등은 연속 감소
  - 프리미엄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코로나19로 TV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멕시코(0.2억 달러, △15.2%)와 브라질(0.1억 달러, △7.6%) 수출은 부분품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크게 둔화
    - ※ 멕시코/브라질 수출 증감률 추이(% IITP, KTSPI) : ('20.10월) △50.7/△67.4, (11월) △62.6/△75.1, (12월) △52.5/△66.5
  - 폴란드(0.2억 달러, 98.7%↑)는 OLED TV(△72.3%) 등 완제품 수출이 반락한 반면 부분품 수출이 9개월 연속 고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수출액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
  - 베트남(0.1억 달러, △45.2%)은 OLED TV 수출(619.1%↑)이 세 자릿수 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주요 수출품인 부분품(0.1억 달러, △45.3%)의 감소로 하락 기록

표 1-12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	2	3	4	5	6	7	8	9	10	11	12	'21.1
D-TV	1.5 (△46.5)	1.4 (△44.1)	1.8 (△35.9)	0.7 (△76.7)	1.0 (△68.1)	1.8 (△47.0)	1.8 (△38.1)	1.4 (△45.6)	1.2 (△41.3)	0.9 (△59.2)	0.7 (△64.9)	0.7 (△56.1)	0.8 (△46.7)
LCD TV	0.3 (△2.0)	0.3 (△0.5)	0.4 (△15.3)	0.2 (△50.9)	0.2 (△49.9)	0.3 (△12.0)	0.2 (△37.7)	0.1 (△62.3)	0.0 (△94.4)	0.0 (△91.2)	0.0 (△95.5)	0.0 (△95.3)	0.0 (△93.3)
OLED TV	0.1 (21.6)	0.1 (△29.5)	0.1 (28.6)	0.1 (17.2)	0.1 (△13.0)	0.1 (116.5)	0.1 (87.3)	0.1 (4.3)	0.1 (△2.9)	0.1 (10.3)	0.0 (△74.7)	0.0 (△79.7)	0.0 (△92.9)
부분품	1.0 (△55.1)	1.0 (△51.8)	1.4 (△42.3)	0.3 (△85.3)	0.7 (△72.3)	1.4 (△53.7)	1.4 (△41.6)	1.2 (△44.8)	1.1 (△33.0)	0.7 (△59.0)	0.7 (△59.8)	0.7 (△49.0)	0.8 (△28.0)

자료 : IITP, KTSPI



그림 1-10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1월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8.6	264.1	28.1	멕시코	3.4	-60.7	22.9	멕시코	0.2	-15.2	25.8
2	베트남	3.2	417.7	10.5	베트남	1.7	-48.8	11.2	폴란드	0.2	98.7	19.2
3	중국	2.4	43.6	7.9	폴란드	1.4	25.3	9.4	베트남	0.1	-45.2	10.8
4	브라질	2.4	340.5	7.9	브라질	1.0	-56.5	7.1	브라질	0.1	-7.6	9.8
5	헝가리	2.0	5,420.9	6.6	이집트	0.7	-53.4	4.6	인도네시아	0.0	140.0	5.0
6	이집트	1.5	181.5	4.8	UAE	0.6	-17.9	4.4	미국	0.0	-30.6	4.5
7	폴란드	1.1	-4.8	3.6	일본	0.5	-25.6	3.7	이집트	0.0	-63.8	4.4
8	슬로바키아	0.8	233.6	2.7	인도	0.5	-8.6	3.4	라오스	0.0	-30.0	3.5
9	UAE	0.8	-30.2	2.6	인도네시아	0.5	6.7	3.1	아르헨티나	0.0	78.2	3.2
10	미국	0.7	-28.6	2.4	홍콩	0.4	-31.2	3.0	남아프리카	0.0	3.2	3.0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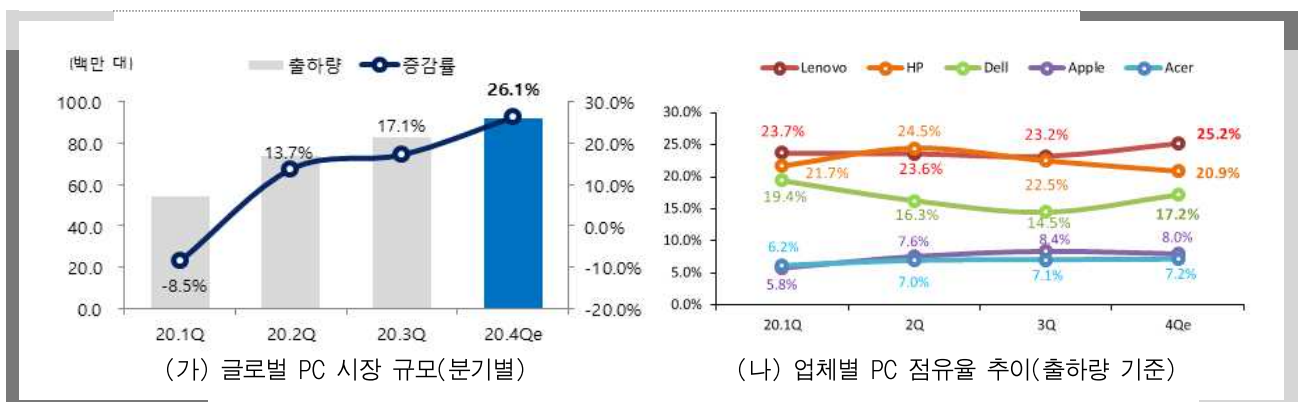
## 6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 수출 환경

#### □ 코로나19 사태로 활기를 되찾은 글로벌 PC 시장, 원격 업무 등에 특화된 제품에 주목

- (시장 규모) '20.4분기(9,159만 대, 26.1%↑) 수요 강세가 지속되면서 상승 곡선을 유지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PC를 활용한 비대면 수요가 지속. 4분기 PC 시장도 두 자릿수 대 성장 가도를 이어가며 당초 예상치(8,450만 대)를 크게 상회
  - 연이은 고공행진으로 '20년 PC 출하량(3억 260만 대, 13.1%↑)은 '10년(13.7%↑) 이후 처음으로 13%를 웃도는 수준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전망
  - 이어 '21년 PC 시장도 공급망 회복, 비대면 교육 등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경쟁 현황) '20.4분기에 Lenovo(2,312만 대, 29.0%↑)는 출하량 2,000만 대를 돌파하며 25.2%의 점유율을 차지. 2위 HP(1,913만 대, 11.3%↑)와의 격차도 4.3%p로 크게 벌어지며 1위를 유지할 전망
- 이전 분기 점유율 하락을 겪었던 Dell(1,580만 대, 26.8%↑)은 4분기 17.2%로 회복하면서 3위에 랭크
- Apple(735만 대, 49.2%↑)과 Acer(655만 대, 48.3%↑)는 상위 3개 업체의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는 50%에 육박하는 성장률로 선전하면서 각각 8.0%, 7.2%의 점유율로 4, 5위를 차지
-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원격 업무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한 제품(CES 2021서 공개)에 눈길
  - (HP) CES 2021에서 공개한 '엘리트 드래곤플라이 맥스'는 일반적인 720p보다 픽셀이 4배 많은 5MP 웹캠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배경 노이즈를 필터링해주는 마이크 등을 적용해 성능을 강화
  - (Dell) '에일리언웨어(m15 R4, m17 R4)'도 온라인 교육 등을 겨냥, 성능을 개선한 웹캠(1,080p)을 탑재

그림 1-11 | 글로벌 PC 시장 규모(분기별) 및 업체별 PC 점유율 추이(출하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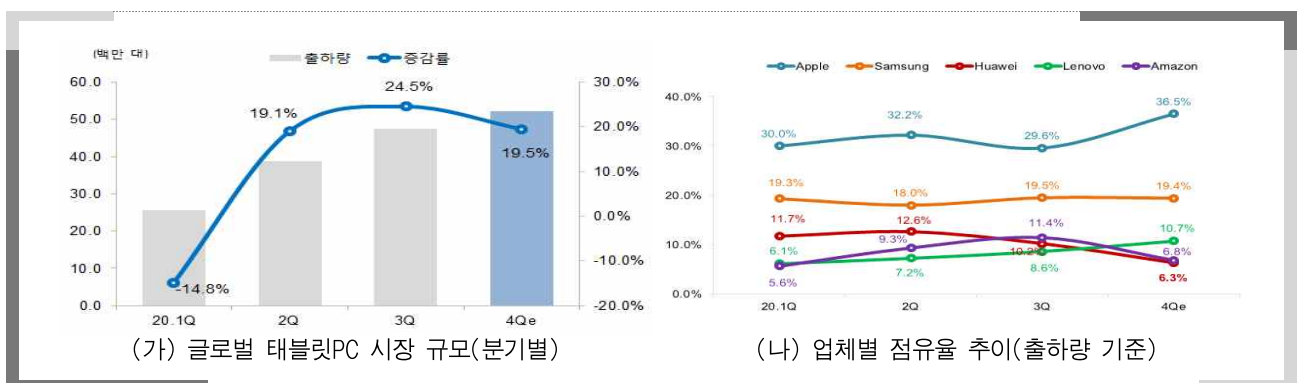


자료 : IDC, 2021.1.

## □ 태블릿PC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적 부활, 다만 화웨이는 홀로 역성장 해 눈길

- (시장 규모) '20.4분기 출하량은 19.5% 늘어난 5,220만 대를 보일 전망(IDC, '21.1월)
  - 태블릿PC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으로 전례 없는 수요 강세를 보이며 출하량 5,000만 대를 돌파. 부품 부족 등으로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PC 대체재로도 채택되면서 성장 가속
    - ※ 4분기 성장에 힘입어 '20년 태블릿PC 시장(1억 6,410만 대, 13.6%↑)은 두 자릿수 대 성장률로 상승할 전망
  - 키보드가 분리되는 디태처블(27.9%↑) 제품은 물론 슬레이트(13.7%↑) 제품도 상승 관측. 다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노트북·스마트폰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 하락 국면 재진입이 예상
- (경쟁 현황) '20.4분기 Apple(1,900만 대, 19.5%↑)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아이패드 8세대'를 잇따라 출시('20.10월)하면서 36.5% 점유율로 1위 아성을 유지
  - 2위로 뒤를 추격하고 있던 삼성전자(1,010만 대, 44.9%↑)는 '갤럭시 탭S7 시리즈'의 높은 인기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점유율 19.4%를 기록했으나 Apple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
  - Lenovo(560만 대, 120.6%↑)는 상위 업체들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대의 눈에 띄는 성장률을 보이며 10.7%의 점유율로 전 분기 대비 무려 2단계 상승하며 3위를 차지
  - Amazon(360만 대, 7.6%↑)은 점유율 6.8%로 한 단계 하락한 4위에 랭크. 美 제재로 주요 업체 중 유일하게 출하량이 크게 감소한 Huawei(330만 대, △25.7%)는 점유율도 6.3%에 그치며 5위로 하락
  - '20년 연간 기준으로는 Apple(32.5%), 삼성전자(19.1%)가 각각 1, 2위를 유지하며 전체 태블릿PC 시장의 절반 이상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관측. 이어 Huawei(9.8%), Lenovo(8.6%), Amazon(8.5%) 순으로 랭크

**그림 1-12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규모(분기별)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출하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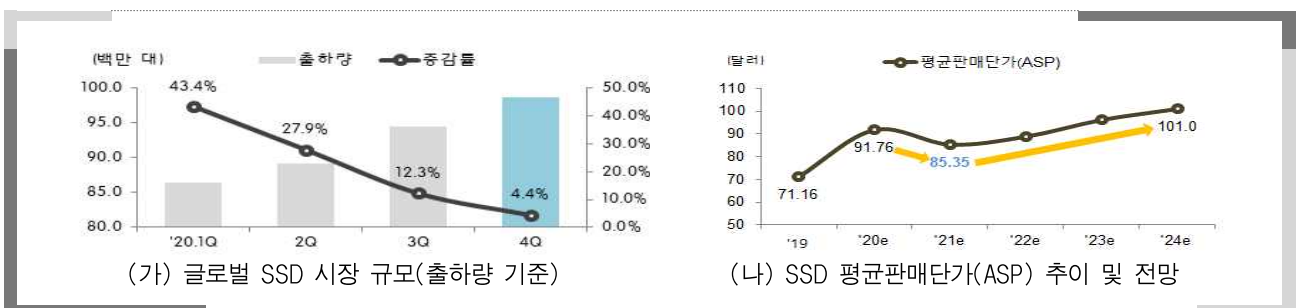


자료 : IDC, 2021.1.

## □ '20년 SSD 시장이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비대면 수요가 지속되면서 성장할 전망

- (시장 규모 및 전망) '20.4분기 SSD 출하량(9,861만 대, 4.4%↑)과 매출액(75.7억 달러, 12.7%↑)은 다소 완만한 상승 곡선 관측(IDC, '21.2월)

- (소비자용)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수요와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게이밍 제품 수요 증대 등으로 출하량(8,615만 대, 9.8%↑)과 매출액(42.9억 달러, 25.1%↑)이 동반 성장
- (기업용) 상반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매를 크게 확대하면서 축적된 재고 영향으로 출하량(899만 대, △25.8%)과 매출액(31.9억 달러, △0.5%)이 동반 하락 전환
- '20년 연간으로 보면 SSD 출하량은 코로나19發 소비자용 수요 확대로 19.5% 증가한 3억 6,867만 대를 기록. 또한 SSD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매출액은 무려 51.3% 성장한 332.1억 달러를 형성
- '21년에도 출하량(4억 328만 대, 10.5%↑)이 늘며 최초로 4억 대를 돌파할 전망(IDC, '20.12월)
- 국내 업체는 소비자용 SSD를 중심으로 선두 수성 기대, 인텔의 사업 구조 변화 행보에도 눈길
  - (삼성전자) 최상의 성능, 강력한 호환성, 5가지 종류(250GB, 500GB, 1TB, 2TB, 4TB)의 용량을 갖춘 소비자용 SSD ‘870 EVO’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1.20일)
  - 먼저 성능 측면에서는 최신 V낸드와 컨트롤러를 탑재했고, 사용자의 작업량에 따라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인텔리전트 터보라이트 기술도 적용해 체감 성능을 향상시킨 점이 특징
  - 이에 따라 연속 읽기·쓰기 속도(한 개 파일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고 쓰는 속도)는 각각 560MB/s, 530MB/s를, 임의 읽기·쓰기(여러 개의 분산된 파일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는 각각 98,000 IOPS(초당 입출력 작업 처리 속도), 88,000 IOPS의 속도를 지원
  - 호환성 측면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이 상시 연결 환경을 지원하는 ‘모던 스탠바이(Modern Standby,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전원관리 기능)’를 만족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 탁월
  - (인텔) '17년 소비자용 ‘옵테인 SSD’ 첫 제품 출시 이후 4여년 만인 '21.1.19일 생산 중단을 선언. 이는 '20.10월부터 진행 중인 인텔의 낸드 사업 매각(SK하이닉스 인수)에 따른 것으로 분석
  - 다만 ‘옵테인 H20’ SSD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용(기업용) 제품은 생산을 이어나갈 방침
    - ※ 옵테인은 인텔과 마이크론이 공동 개발한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인 ‘3D XPoint’의 브랜드 이름. 옵테인 제품은 기존 낸드 기반 SSD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지녔으나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적은 용량,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힘에 따라 동 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용을 단종하고 기업용 제품에 매진기로 전략을 변경

**그림 1-13 | 글로벌 SSD 시장 규모(출하량 기준) 및 SSD 평균판매단가(ASP)**


자료 : IDC, 2021.2. / IDC, 2020.12.

## 2) 수출 동향

### □ '21.1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2.6% 증가한 9.9억 달러로 완만한 상승 기록

- **(품목별)** 컴퓨터 수출은 성장세이나 주변기기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락하면서 '21.1월 수출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관측
  - (컴퓨터 : 1.6억 달러, 23.4%↑) 완제품 컴퓨터 수출 호조와 더불어 컴퓨터 부품(1.4억 달러, 25.9%↑)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대의 오름세 유지
  - (주변기기 : 8.3억 달러, △0.7%) 프린터, 보조기억장치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수출 부진, SSD 수출(7.0억 달러, 1.7%↑) 성장 폭 위축 등으로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멕시코 등은 호조세가 지속되는 반면 미국 등은 하락 반전
  - 중국(홍콩 포함, 3.8억 달러, 10.8%↑)은 컴퓨터(1.3억 달러, 24.2%↑)와 주변기기(2.6억 달러, 5.2%↑)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로 1위를 유지
  - 지난해 연간기준 95%가 넘는 큰 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미국(2.4억 달러, △28.3%)은 SSD 수출(1.9억 달러, △30.6%)의 급감,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 전환
  - 멕시코(0.5억 달러, 98.9%↑)는 SSD(0.4억 달러, 90.8%↑), 모니터(0.05억 달러, 326.2%↑) 등의 주변기기 수출(0.5억 달러, 99.3%↑)을 중심으로 큰 폭 성장하며 3위로 부상

**표 1-1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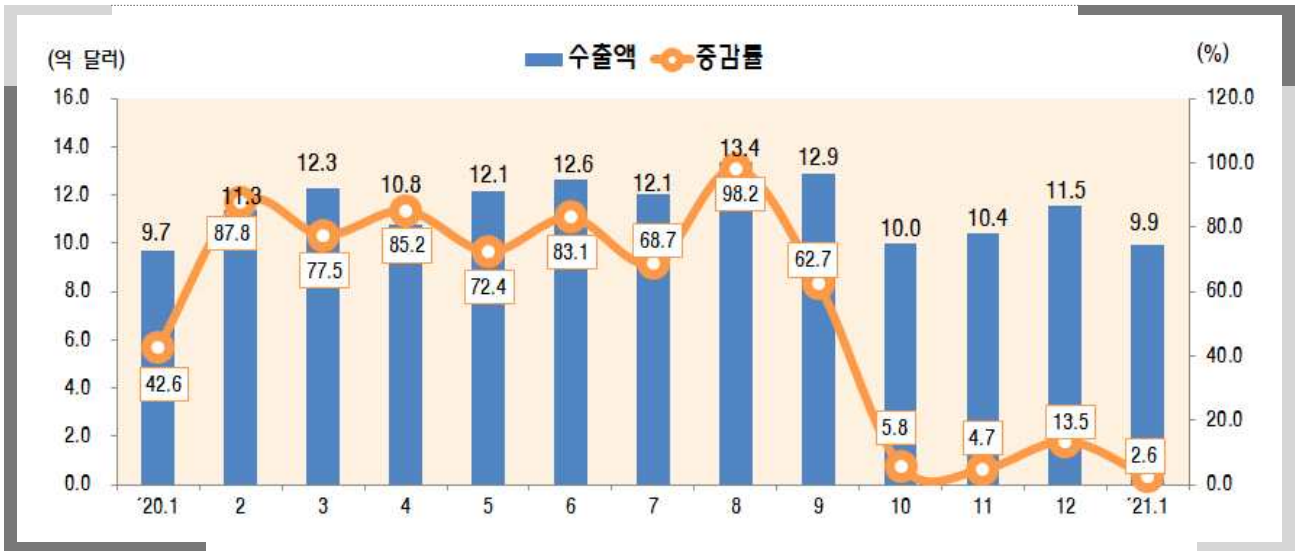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	2	3	4	5	6	7	8	9	10	11	12	'2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9.7 (42.6)	11.3 (87.8)	12.3 (77.5)	10.8 (85.2)	12.1 (72.4)	12.6 (83.1)	12.1 (68.7)	13.4 (98.2)	12.9 (62.7)	10.0 (5.8)	10.4 (4.7)	11.5 (13.5)	9.9 (2.6)
컴퓨터	1.3 (△30.6)	1.3 (△19.0)	1.5 (△19.3)	1.5 (△6.5)	1.7 (0.2)	1.7 (13.2)	2.0 (16.4)	1.7 (19.5)	2.0 (30.0)	1.8 (12.0)	2.0 (25.8)	2.1 (19.8)	1.6 (23.4)
부품	1.1 (△25.5)	1.0 (△21.9)	1.1 (△21.2)	1.3 (△1.5)	1.5 (5.4)	1.4 (23.0)	1.6 (19.1)	1.5 (24.9)	1.7 (48.9)	1.5 (11.5)	1.7 (34.8)	1.7 (37.3)	1.4 (25.9)
주변기기	8.4 (70.9)	10.0 (126.6)	10.8 (112.9)	9.3 (120.2)	10.4 (95.5)	10.9 (103.0)	10.1 (85.3)	11.6 (119.6)	10.9 (70.4)	8.2 (4.6)	8.4 (0.8)	9.4 (12.2)	8.3 (△0.7)
보조기억장치	6.9 (128.7)	8.3 (170.2)	8.5 (174.9)	8.3 (250.4)	9.6 (160.2)	9.7 (152.2)	8.4 (123.5)	10.2 (165.9)	9.5 (97.6)	6.8 (11.3)	6.9 (7.3)	8.0 (21.9)	7.0 (1.9)
프린터	0.3 (△38.8)	0.3 (△24.5)	0.3 (△28.6)	0.3 (△8.7)	0.2 (△40.3)	0.3 (△14.3)	0.3 (△23.4)	0.3 (△12.3)	0.4 (4.8)	0.3 (1.1)	0.3 (△0.6)	0.3 (3.8)	0.3 (20.0)
모니터	0.8 (△21.5)	0.6 (2.5)	0.7 (△17.1)	0.4 (△54.6)	0.3 (△65.1)	0.3 (△54.9)	0.4 (△50.7)	0.4 (△44.1)	0.4 (△36.7)	0.4 (△47.0)	0.5 (△37.9)	0.5 (△32.8)	0.4 (△43.9)

자료 : IITP, KTSPI



그림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1월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2.0	-9.5	35.2	미국	45.3	95.9	32.6	중국	2.9	5.1	29.7
2	미국	23.1	-8.2	25.5	중국	41.1	28.6	29.6	미국	2.4	-28.3	24.2
3	홍콩	7.0	-55.5	7.8	홍콩	12.5	77.9	9.0	홍콩	0.9	36.3	8.7
4	일본	3.4	-12.8	3.8	일본	5.0	46.1	3.6	멕시코	0.5	98.9	4.9
5	멕시코	2.3	-44.5	2.5	멕시코	3.5	54.3	2.5	대만	0.5	112.6	4.6
6	네덜란드	2.0	-1.5	2.2	대만	3.2	130.3	2.3	일본	0.4	25.0	4.2
7	독일	1.8	-18.3	2.0	네덜란드	3.0	47.2	2.1	오스트리아	0.3	132.1	3.2
8	싱가포르	1.4	-8.0	1.6	독일	2.6	46.1	1.9	네덜란드	0.3	35.9	2.8
9	대만	1.4	2.1	1.5	체코	2.3	211.6	1.7	싱가포르	0.2	39.2	1.9
10	폴란드	1.3	6.0	1.4	오스트리아	2.2	93.4	1.6	독일	0.2	-3.5	1.5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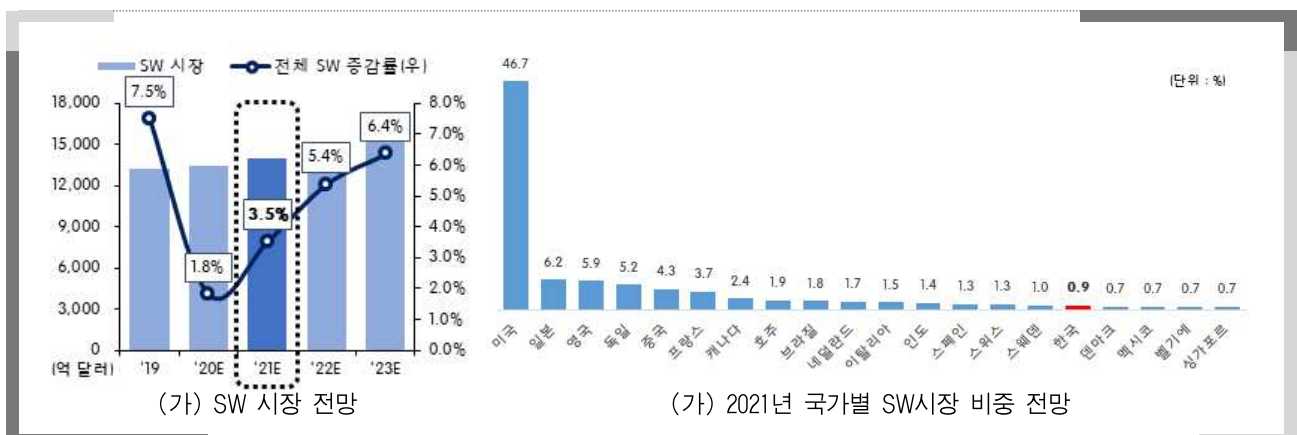
## 7 SW

### 1) 수출 환경

#### □ 글로벌 SW 시장은 성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 (시장 전망) '21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비대면 관련 수요와 더불어 신규 시장 확산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 3,973억 달러로 증가폭 확대가 전망(IDC, '21.1월)
  - (IT서비스 : 7,177억 달러, 1.9%↑)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신규 투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패키지SW : 6,796억 달러, 5.3%↑)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환경 구축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 필수 요소 및 클라우드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한편 사업과 업무 현장에 AI(인공지능)를 적용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IoT(사물인터넷)·VR(가상현실) 등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면서 관련 SW 시장 확대도 기대
- (국가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흥국의 성장세에 주목
  - 46.7%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SW 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6,522.3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모든 지역에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중국(5위, 증감률 11.7%↑)·브라질(9위, 10.7%↑)·인도(12위, 8.2%↑)·멕시코(18위, 7.0%↑) 등 신흥국은 7%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특히 브라질·멕시코는 전년 대비 순위가 각각 2계단, 4계단씩 상승
  - 국내 SW 시장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31.8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나 세계 시장 내 비중은 0.9%, 상위 20개 국가 중 16위로 한 단계 하락할 것으로 분석

그림 1-15 | 전세계 SW 시장 전망 및 국가별 비중 전망






자료 : IDC Blackbook, 2021.1.



## □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클라우드·블록체인·AI 등을 활용해 신규 시장 진출을 도모

- 삼성SDS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며 미국 원격 진료 시장, LG CNS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신원인증 시장, SK C&C는 시각 AI 기술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

표 1-16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일 '원뷰 헬스케어(Oneview Healthcare)'의 클라우드 기반 병상 솔루션 '클라우드 스타트(Cloud Start)'를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원격진료 시장 공략을 시작</li> <li>-삼성SDS 미국법인과 원뷰 헬스케어는 뉴욕 4개 병원에서 '클라우드 스타트'의 베타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21.2월 본격 출시해 현지 요양병원 등 전문 의료 시설에 공급할 예정</li> <li>-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클라우드 스타트는 삼성전자 태블릿에서만 작동되면서 삼성SDS는 원격 진료가 가능한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원격진료 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li> <li>※'클라우드 스타트'를 통해 입원한 환자들은 비대면으로 자신의 치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화상 통화 앱을 통해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할 수 있으며, 의료진들은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병실 준비 알림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성 및 치료 품질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시작 등으로 차세대 신원인증 시장을 선도</li> <li>-'20.7월 라온시큐어·시스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에 착수했으며 파트너사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li> <li>※DID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원인증 서비스로, 사용자는 발급 받은 DID 인증을 자신의 기기에 직접 저장하고 중앙기관 없이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신원을 증명</li> <li>-'20.12.28일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으며 '21.1월부터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세종·서울청사 공무원 약 1,500명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20만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확대할 계획</li> <li>-올해 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도입 등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신분증 확대 계획에 따라 LG CNS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인증 생태계 구축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li> <li>-한편 LG CNS는 2.3일 사내 벤처 '팀 호퍼'를 통해 DID 기반 로그인 서비스 '호퍼'를 공개했으며 자사 DID 기술 및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이팩토리 스마트 비전'을 공개하고 스마트 팩토리 시장 공략에 박차</li> <li>-SK C&amp;C는 2.3일 마이크로미터(<math>\mu\text{m}</math>·100만분의 1m) 단위의 '픽셀'까지 읽어내는 범용 AI 패키지 솔루션 '아이팩토리 스마트 비전'을 공개</li> <li>※아이팩토리 스마트 비전(I-FACTs Smart Vision)은 시각 AI 기술 기반의 각종 제품 이미지 처리, 분류, 비교 분석, 학습 등 기능을 적용해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li> <li>-카메라·CCTV 등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및 데이터를 분석해 불량 검사, 제품 식별, 치수 측정 등 사람 작업자가 고가의 별도 품질 장비로 측정해야 하던 검사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 불량을 제거하는 품질 관리 업무나 수질 관리 등 ESG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li> <li>※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핵심요소</li> <li>-올해 코로나19로 중단된 설비 투자가 재개되고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이팩토리'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박차, 향후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게 AI·IoT·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공정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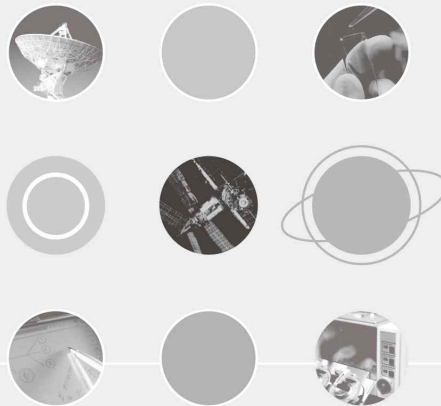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II

## 트레이드 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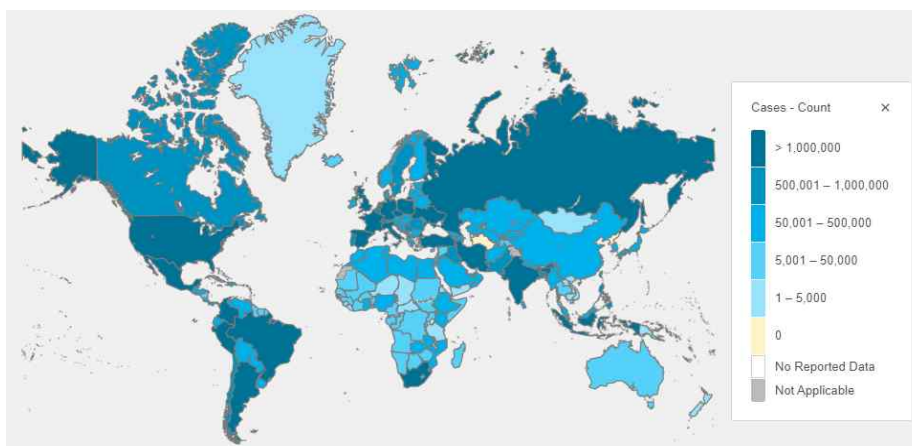
## II 트레이드 GPS<sup>2)</sup>

### 1 비대면 환경에 따른 ICT 수출 관심 품목 조망

####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진전

- 전염성 높은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각국의 통제 조치 시행 증가로 대면 중심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환경 기반의 수요가 급속히 확산
  - '19.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으며 '20.3.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단계인 팬데믹(세계적인 유행 단계)을 선언
    - ※ 최초 발병부터 1년이 지난 '21.2.20일 현재 1억 1,038만 9,535명이 감염되고, 244만 6,056명이 사망했으며, 전일 대비 감염자 38만 4,017명 증가, 사망자 수도 10,735명이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질병 확산이 진행(WHO)
  -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감염자와의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직장·백화점 등 공공시설 폐쇄 조치, 출입국 통제,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 이에 따라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제한되면서 재택근무·원격수업·영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재택 시간 증가로 스마트 홈 구축, 게임·영화 등 홈 엔터테인먼트 수요 확대,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증가 등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가 확대
    - ※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문제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준 기존의 경제 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파급력이 강력

그림 2-1 | 코로나19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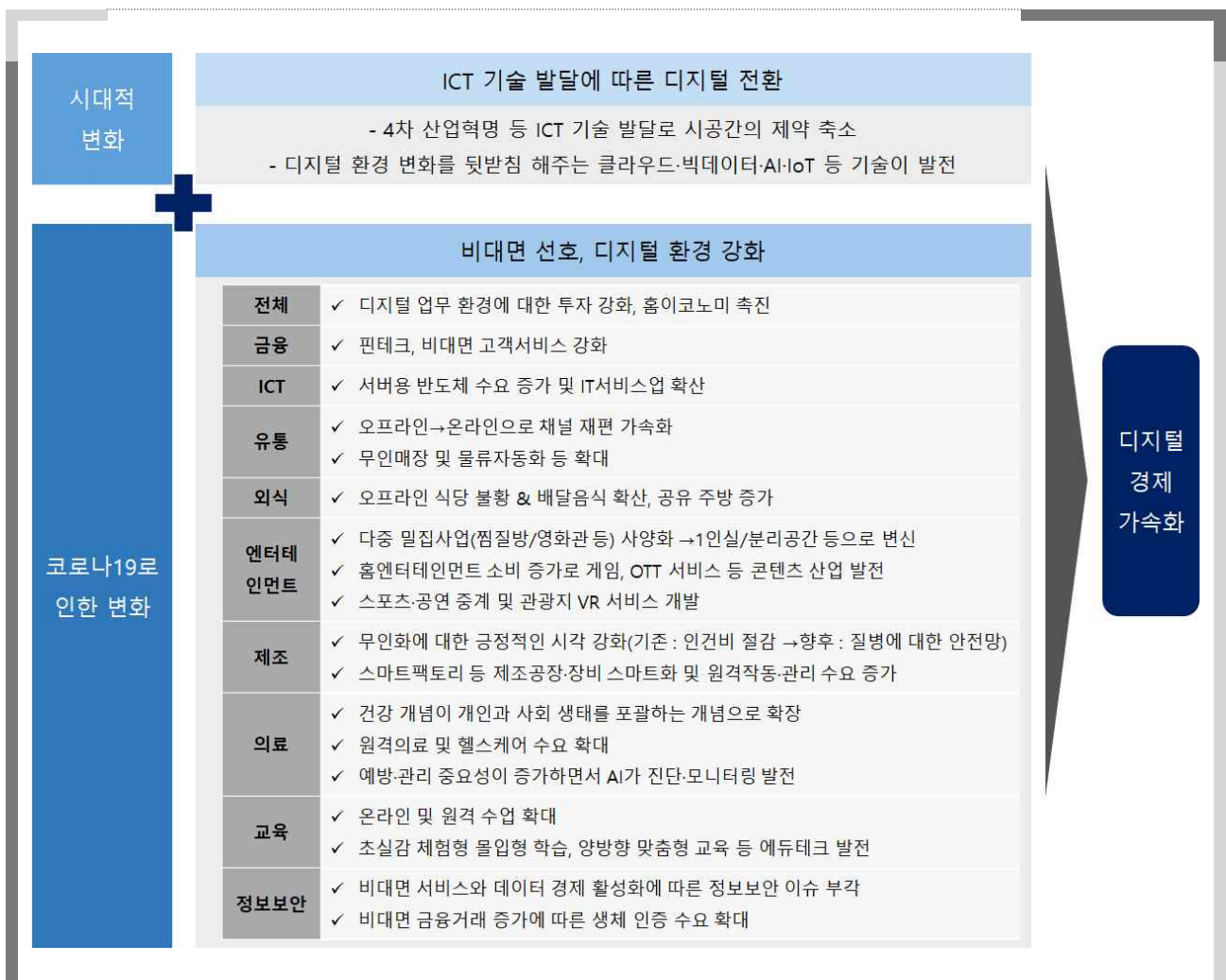
자료 : WHO(2021.2.20. 기준)

2)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산업, ICT 산업의 신성장 키워드로 부상

- 코로나19 이후 교육·경제·의료·금융·농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비대면(Untact)’ 환경을 일상화할 것으로 예상
  - AI,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
  - 코로나19로 급격한 환경 리스크에 직면하고 생활방역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초연결 사회가 다시 한 번 주목. 즉 대면 중심의 환경에서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가 AI,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 이 같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는 ICT 업계에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그림 2-2 |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될 산업 환경**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함께 원격 의료·에듀테크·스마트 홈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 확대가 전망되면서 관련 ICT 품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택근무 증가로 인한 기업 보안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해 비대면 서비스 산업에서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주목되면서 향후 클라우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는 서버/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관련 반도체, SSD 등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원격 의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시스템 마비, 내원 기피 등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원격 진료 등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
  - ※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은 '19년 460억 달러에서 '26년 1,760억 달러로 연평균 21.3%의 성장 전망(Statista)
-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 등의 시장 성장 기대
- (에듀테크) 오프라인 강의 및 교육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반영한 온라인 강의와 교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 특히 코로나19로 원격학습이 일상화되면서 가상/증강현실(VR/AR) 및 AI 기술에 기반한 에듀테크가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세계 이러닝 산업은 '22년 2,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AI·빅데이터·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산업은 '18년~'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2.3%씩 성장해 3,420억 달러에 이를 전망(홀론IQ)
- 원격 학습에 필수적인 PC(태블릿PC 포함)는 물론 양방향 교육을 위한 기기인 웹캠, 헤드셋 등의 시장 성장 기대
- (스마트 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가정환경 개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스마트 홈 시장도 큰 폭의 성장 전망
  - ※ 글로벌 스마트 홈 시장은 '19년~'25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스마트 홈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IoT 기능이 탑재된 가전용기기 시장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

**표 2-1**      **비대면 산업 관련 유망 ICT 품목 예**

영역	주요 품목 예
디지털 환경 구축 수요	(서버/데이터센터 관련) 반도체, SSD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기기 수요	(원격 의료 관련)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웨어러블 기기 등 (에듀테크 관련) PC 및 주변기기, 웹캠, 헤드셋 등 (스마트 홈 관련) 공기청정기 등 IoT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홈 IoT 기기 등

○ (참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유망 기술(KISTEP, '20.7월)

- KISTEP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속 주요 영역별 전망을 바탕으로 25개 유망 기술을 선정했으며, 이 중 ICT와 관련이 있는 7대 영역의 22개 유망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리

〈 포스트 코로나19 영역별 유망기술 〉

영역	유망기술	기술 내용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기술정의	정신병리, 심리 등을 섭취하는 의약품 대신 치료하는 SW(앱, 게임, 가상현실 등)로 FDA나 식약청 승인을 거친 치료용 콘텐츠 기술
		세부기술	•콘텐츠 기술 •실감형 인터랙션 기술 •정보 분석 기술 •UI/UX 기술
		활용	비대면 정신질환(우울증, 중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
	AI기반 실시간 질병진단 기술	기술정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를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SW 기술
		세부기술	•정보 분석 기술 •자동진단 알고리즘 •클라우드, 통신 기술 •정보보안 기술
		활용	실시간 질병 진단(지원)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 기술	기술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세부기술	•센싱 기술 •정보 분석 기술 •이상 알림 기술 •UI/UX 기술 •정보보안 기술
		활용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병원치료 연계
	감염병 확산 예측·조기경보 기술	기술정의	질병의 전파 과정, 감염 환자, 인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기술
		세부기술	•정보 분석 기술 •위치정보 추적 기술 •위험 알림 기술
		활용	감염병 (사전)대응, 역학조사
교육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혼합 현실기술	기술정의	가상·혼합현실 실감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인문·사회·예술 등 융합도메인 특화 기술
		세부기술	•혼합현실(MR) •빅데이터 처리 •인터페이스 •렌더링 기술
		활용	신체적 장애 극복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 교육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기술	기술정의	AI엔진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가 학습자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난이도를 조절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술
		세부기술	•학습관리시스템(LMS) •맞춤학습 SW
		활용	학습 데이터 및 상호작용(학습자-콘텐츠,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대용량 통신기술	기술정의	온라인 강의 등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트래픽을 분산시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크 기술
		세부기술	•빅데이터 전송 •클라우드 기반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활용	원격수업체제 인프라 확충
교통	개인 맞춤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기술정의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으로 도착 후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퍼스널/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술과 공유 모빌리티 등과의 연계 서비스 기술
		세부기술	•초소형 모빌리티 •주행보조기술 •인증기술
		활용	근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 친환경적 방식으로 교통 체증 해결
	통합교통 서비스(MaaS)	기술정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Mobility as a Service)
		세부기술	•플랫폼 기술 •블록체인 •교통 정보 서비스
		활용	기존 교통수단의 복합연계 강화, 통행 유형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
	감염의심자 이송용 자율주행	기술정의	감염의심 대상자의 공항·자택·병원 간 연결, 혹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심특화형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세부기술	•자율주행 AI •측정센서 •차량 통신
		활용	자연재해, 방사능 등 각종 위험 상황 발생 시 무인으로 대응
물류	ICT기반 물류정보 통합	기술정의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물류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실시간 예측 배송 및 재고관리를 실현하는 기술



	플랫폼	세부기술	•데이터 솔루션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화물운송, 해운물류, 창고관리, 물류계약 등 물류서비스 전반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기술정의	생활물류에서 배송기사와 협업할 수 있는 말단 배송용 자율주행 배송 로봇 기술 및 스마트 보관함 연계 기술	
		세부기술	•자율주행 •경로최적화 •스마트보관함	
		활용	온디맨드 택배/배달 서비스, 자율주행 트럭 연계 무인배달 서비스	
		유통 물류센터 스마트화 기술	기술정의	물류센터(폴필먼트)에서 제품 부품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소량 다품종 다빈도 화물 처리과정을 지능화, 자동화하는 기술
세부기술	•자동화 로봇 •자율주행 •정보처리			
활용	물류센터 내 재화 이송, 창고 내 고종량, 위험 업무 처리, 공간활용 최적화			
제조	디지털트윈	기술정의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가상물리시스템(CPS)의 고급형 기술 유형)	
		세부기술	•센서기술 •디지털 사물설계 •가상세계 시뮬레이션	
		활용	제품 설계, 플랜트 운영 감시, 작업량 예측, 생산 손실 예측, 고장 진단 및 예측, 성능 분석	
	인간증강 기술	기술정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기존 능력이나 부족한 능력을 향상(증강)시키는데 사용되는 생명공학, 전자공학 및 기계공학의 기술 조합	
		세부기술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지능력 처리 •신체증강로봇	
		활용	인공청각, 인공시각, 뇌 임플란트, 사지보철 제품, 수면유도, 집중도 향상 뉴로 피드백 제품, ADAS 기능 구현을 위한 BMI 기술	
	협동로봇	기술정의	주로 생산 현장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고, 생산 현장에서 인간 대신 단순 반복 작업, 정밀 작업, 위험 작업을 수행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	
		세부기술	•다자유도로봇 •로봇 인터페이스 •협동공간 감지	
		활용	자동차 의장공정, 품질검사용 협동로봇, 가로등 조립공정, 플랜트용 협동로봇, 화장품 포장 공정, Pick&Place 작업,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용 협동로봇	
	문화	실감 중계 서비스	기술정의	가상현실(VR) 방송, 3DTV와 같이 시청자의 현실감 및 몰입감을 증가시켜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실감형 영상·음향 서비스 기술
			세부기술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5G 기술 •실감 서비스용 디스플레이 기술
			활용	실감 스포츠 중계, 실감 예배, 실감 공연 중계
드론 기반 GIS 구축, 3D 영상화 기술		기술정의	드론에서 취득한 영상데이터를 이용해 GIS를 구축하고 후처리 공정을 통해 3D 영상화하는 기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세부기술	•드론 기술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관광지를 3D 영상화하여 VR 등의 서비스 제공	
딥페이크 탐지기술		기술정의	딥페이크를 탐지하여 해당 영상의 위조 여부를 밝히는 기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안면 매핑(Facial Mapping)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영상을 뜻하며, 가짜뉴스,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음	
		세부기술	•검증용 AI •블록체인	
		활용	사기 및 가짜 영상에 사용되는 영상 및 음성의 진위여부 판독	
정보 보안	화상회의 보안성 확보기술	기술정의	취약점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다양한 기능(참여자 인증, 안전한 화상/데이터 전송, 녹화 제한, 파일 송수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세부기술	•인증 및 접속 기술 •위조여부 판별기술 •화상정보 암호화 기술	
		활용	화상회의,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	
	양자암호 기반 화상보안통신 기술	기술정의	양자암호를 이용하여 별도의 중계없이 화상을 전송할 수 있어, 현재의 중간 서버의 저장문제, 해킹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미래 보안통신기술	
		세부기술	•양자 암호키분배기술 •화상회의 시스템 •양자화상 송신	
		활용	해킹프리 화상회의, 양자컴퓨터용 데이터통신	
	동형암호 이용 동선 추적 시스템	기술정의	재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선 추적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기술 적용 시스템	
		세부기술	•동형암호기술 •가명화기술 •정보관제	
활용		개인정보가 보호된 동선 추적, 원격 의료		

자료 : KISTEP,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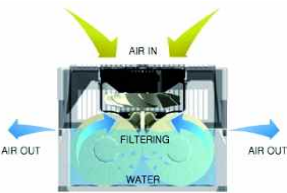
## 2 비대면 시리즈① 공기청정기

### □ 세계적인 비대면 국면 확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위생 가전 공기청정기에 주목

-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웰니스<sup>3)</sup> 가전’이 부상
  - 팬데믹 이후 위생·청결·건강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 등을 제거해 줌과 동시에 실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웰니스 가전제품(의류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이 각광
  - 최근에는 웰니스 제품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탑재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폰과 연동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등이 가능한 스마트 홈 시장 성장도 촉진(후술 참조)
- 특히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웰니스 가전 공기청정기에 주목, 전향적인 시장 흐름도 기대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소비가 증가. 글로벌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20~'27년(246.2억 달러)까지 연평균 12.6%의 성장률로 상승 가도를 보일 전망(Grand View Research, '20.10월)
  - 게다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감염(호흡기 질환)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가정·사무실 등에서의 위생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예방·정화 등을 목적으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더욱 촉진되는 모양새
    - ※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광촉매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해 환기를 한 듯한 효과를 제공해주는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필터를 개발
  - 최근에는 실내 이외에도 차량용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탈취·온도·습도·살균 등의 복합적 기능을 실행하는 제품들이 대거 등장. 동시에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도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요 폭증 기대

#### ○ (참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청정기의 주요 집진기술 종류

※ 최근에는 실내 공기 정화 외에도 살균 기능(UV, 플라스마, 음이온 등)이 결합된 공기청정기가 등장

종류	필터 방식	습식 방식	전기집진 방식	광촉매 방식
원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한 부직포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중 헤팼필터는 0.3μm 크기까지 걸러낼 수 있는 점이 특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의 흡착력을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습 기능도 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 방전으로 미세 먼지를 대전시켜 제거하는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촉매물질 표면에 자외선을 쬔면 활성 산소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3)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이 합쳐진 말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등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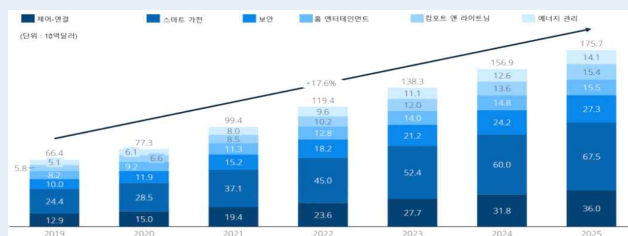
## □ 5G 발달에 따른 IoT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로 디지털 전환 가속, 특히 스마트 가전에 눈길

- 가정 내 모든 기기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에 주목
  - 5G의 확산과 더불어 인공지능 및 음성인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물인터넷 서비스 적용이 점차 확대. 특히 사용자들의 편의성·효율성 요구에 따라 가정 내 가전에 사물인터넷 센서 탑재 비중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홈 시장('21년 994억 달러 규모) 성장을 촉진
  - 스마트 홈의 다양한 분야(에너지, 보안, 제어·연결, 엔터테인먼트 등) 중에서 최근 코로나19로 비접촉식 제어 기능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스피커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 ※ 스마트 홈 내 제어·연결 부문은 '20년 150억 달러에서 '25년 36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
  - 이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 가능한 스마트(IoT 기술과 가전을 융합) 가전 시장도 동반 성장하면서, IoT 플랫폼 활성화는 물론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
    - ※ 냉장고, 에어컨 이외에도 CCTV, 연기 감지기 등 가전 내 IoT 적용 범위가 확대. 스마트 가전 등에 탑재되는 IoT 반도체(소비자를 중심으로)의 경우 '21년 221.2억 달러(24.7%↑) 규모로 성장 전망(Gartner, '21.1월)
  - (참고) IoT가 탑재된 스마트 공기청정기는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해 인공지능 스피커나 스마트폰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추적·제어 등이 가능하며 스마트 홈 구현에도 일조
    - ※ 글로벌 스마트 공기청정기 시장은 '19년 52억 달러→'27년 104억 달러('20~'27년 CAGR 11.6%↑)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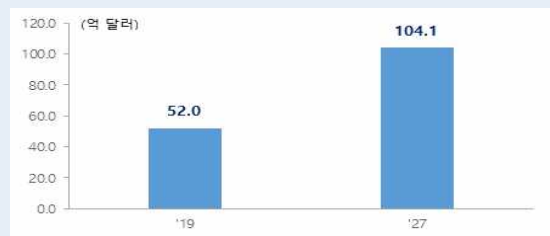
## ○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사물지능(AIoT<sup>4)</sup>) 가전기기도 눈길

- 기존 사물인터넷(IoT) 제품은 외부에서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으로 IoT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을 원격 조종했으나 사물지능(AIoT) 제품은 인간의 개입 없이 기기 스스로 판단해 작동
- 이에 따라 사물지능(AIoT)이 탑재된 공기청정기의 경우 사용자의 실내 거주 여부, 실내의 미세먼지 수준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스스로 구축 및 분석해 실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최적화
- 이러한 스마트 홈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 가전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

### 〈글로벌 스마트 홈 및 스마트 공기청정기 시장 전망〉



(가) 글로벌 스마트 홈 시장 전망



(나) 글로벌 스마트 공기청정기 시장 전망






자료 : 테크월드, '20.11월, 원소스 Statista 재인용/ Allied Market Research, 2020.11.

4) 각 사물의 특성에 맞게 지능을 개발하고 탑재해 활용하는 융합기술(사물인터넷+인공지능)로 인간의 개입 없이 센서가 외부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후 다른 사물 및 인간과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이 가능한 기술

##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 글로벌 수요가 급증, 각국별 시장 동향에도 눈길

- 비대면 문화 확산, 가계 소득 수준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상승 등으로 실내 공기 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공기청정기 시장은 성장 가도

**표 2-2 | 국가별 공기청정기 시장**

국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특유의 생활문화(카펫, 반려 동물 등)로 천식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해, 발병률을 줄이고자 천식의 주원인인 가정 내 먼지 제거를 목적으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은 시장</li> <li>※ 美 가정집 구조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구당이 아닌 각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배치하는 점도 특징</li> <li>•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식당·학교 등의 운영을 '20.5월 재개하면서 공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 '20.9월 美 서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소비가 촉진</li> <li>※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호흡하는 것은 담배 20갑을 흡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해 제품 수요가 급증</li> <li>• 이로 인해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19년 17.5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연평균 12.4% 성장률 ('20~'27년)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Grand View Research, '20.6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으나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 인식 제고 및 소득 수준 증가 등으로 공기청정기 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li> <li>※ '18년 기준 미국(28%), 일본(17%)의 공기청정기 보급률에 비해 중국은 2%에 그친 것으로 관측</li> <li>•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은 '19년 454억 위안(약 70억 달러), '20년 500억 위안을 넘길 전망. '23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14.41%('19~'23년)로 778억 위안(약 120억 달러)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KOTRA, '20.3월)</li> <li>•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운전을 선호하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용도 급증. 공기 위생 안전 인식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中 공기청정기 시장 성장은 지속될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건물 밀도, 현지 차량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홍콩은 '17년부터 공기 청정기 수요가 지속 증가. '20년 9.3만 대(6.7%↑)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24년에는 11.31만 대 규모(연평균 성장률 5.4%↑)에 이를 전망(KOTRA, '20.7월)</li> <li>※ '19년 기준 글로벌 공기 오염도 랭킹 內 홍콩은 44위로 일본(73위), 영국(78위)보다 오염이 심각(IQAir)</li> <li>• '20년 초부터는 휴대용·목걸이용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개인위생은 물론 유모차, 배낭 등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 있는 아동들에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은 중산층의 소득 증가, 현지인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li> <li>•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사망률 Top10 질병 중 6개가 대기 오염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 베트남 국민들의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li> <li>※ '19년 3,805만 달러→'30년 1억 6,00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TechSci Research, '20.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은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등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산층 가정, 병원, 사무실, 기관 등에 공기청정기 도입이 급증</li> <li>• 이외에도 호흡곤란 증상 완화, 수면 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수요에 기인</li> <li>※ 태국 공기청정기 시장은 '19년 9,077만 달러(72.1%↑)→'24년 1억 7,116만 달러 이상 성장 전망(KOTRA, '20.10월)</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 실내 초미세먼지, 바이러스 사멸 등은 물론 IoT 기능까지 겸비한 공기청정기가 등장

- (글로벌 업체) HEPA 필터 방식 제품 위주로 선보이며 차량용 시장으로도 판로를 확대
  - (샤오미) 트루 HEPA 필터와 일체형 3중 필터 시스템을 탑재해 0.3 $\mu$ m 크기의 입자를 99.97% 제거하며 600m<sup>3</sup> 공간에서 분당 10m<sup>3</sup>의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Mi 공기청정기 Pro H'를 출시('20.10월)
  - 이어 먼지, 담배, 연기, 애완동물 털, 꽃가루 등 공기 중 0.3 $\mu$ m 크기의 입자를 99.97%를 걸러내 분당 5m<sup>3</sup> 공간에 청정 공기를 전달하는 'Mi 공기청정기 3C'도 동시 공개



- (필립스) 대형 SUV에 적합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고퓨어 파워’를 출시(’20.2월). 정밀한 레이저와 가스 센서를 사용해 초미세먼지, 바이러스, 연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포자, 진드기는 물론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 암모니아, 담배 연기 등 불쾌한 냄새도 감지
  - 해당 제품에 동사가 자체 개발한 4중 셀렉트 필터 플러스 160(대형 HEPA/ HESA 필터) 2개를 장착함으로써 공기 내에 존재하는 125가지의 유해물질 정화
  - 이외에도 차량 내 실시간 공기질을 3가지 색상과 수치로 나타내는 AQI(대기 질 지수) 리모컨을 제공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오염도의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원거리에서도 제어 가능
  - (파나소닉) ’21.1월 중순부터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인 그랩(Grab)과 합의해 4개국 5개 도시에 있는 5,500여 대의 그랩카에 자사의 소형 공기청정기 ‘Nanoe X’를 공급기로 계약(’21.1월)
    - ※ 4개국 5개 도시에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이 포함
  - 동 사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컵홀더 크기의 소형 공기청정기로, 그랩 애플리케이션과 해당 제품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 공기질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브랜드 입지도 다질 계획
- (국내 업체) 기존 고정형 공기청정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
- (LG전자) 마스크처럼 착용하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공개(’20.9월). ‘H13 헤파필터’와 호흡을 조정하는 팬 등을 탑재해 사용자가 편하게 숨쉬며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점이 특징
  - 또한 건강·위생을 겨냥해 처음으로 항바이러스·항균 효과가 있는 트루 토탈케어 필터를 적용한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플러스’도 출시. 해당 필터는 쥐코로나바이러스를 99.9% 제거(’21.1.5일)
    - ※ 0.01 $\mu$ m 크기의 극초미세먼지와 더불어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대장균 등까지 99.9% 제거 가능
  - (위니아딤채) 넓은 면적(100.2m<sup>2</sup>)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최적화된 대형 공기청정기 ‘퓨어플렉스’를 출시(’21.1.14일). 원기둥 형태를 채택해 이전 제품의 취약점(제품 주변의 바닥 먼지 정화 등)을 보완
  - (코웨이) 겨울철 공기, 습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20.11월 출시)’에 주목. 4단계의 필터 시스템, 수조부 내 물 고임을 방지하는 특허기술 ‘워터락’ 등을 적용
  - (쿠쿠)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의 제품은 스스로 필터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자가관리형 제품으로 구성돼 있어 미국·베트남 등 현지 시장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
    - ※ ’20.3월에는 34평형 정도의 넓은 면적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울트라 12000’ 공기청정기를 출시
  - (에코백스) 세계 최초 자율주행 로봇 공기청정기 ‘ATMOBOT Pro’를 공개(’20.2월). 기존 경쟁 업체에서 출시하던 고정형에서 탈피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각종 센서 탑재는 물론 사물인터넷(IoT)과도 연계돼 실시간으로 가정 내 공기 측정, 오염된 영역 발견 시 자동으로 해당 위치로 움직여 공기 정화를 해줌으로써 공기 정화 효율성을 제고

## □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수출이 호재

- (전체) 공기청정기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요 확대 품목으로 수출 호조세가 관측
  - (연간) 美 대형 산불 발생,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기 내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며 '20년 수출(2억 3,269만 달러, 79.9%↑)은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 향후에도 IoT 센서 탑재 확대, 소비자들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공기청정기 수출은 유망할 전망
  - (월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20.9월(3,000만 달러, 205.5%↑)을 기점으로 4개월 동안 2,000만 달러를 상회하며 세 자릿수 대의 고공행진 지속. '21.1월에도 상승 폭은 둔화되었으나 증가 일로

그림 2-3 | 공기청정기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말레이시아·네덜란드 등) 수출의 고성장이 지속
  -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미국(519만 달러, △30.4%)은 '20.9월 발생한 산불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촉진되면서 '20.하반기(790만 달러, 191.8%↑) 높은 성장세를 기록. 다만 '21.1월 수출은 8개월 만에 주춤
  - 말레이시아(390만 달러, 32.5%↑)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날아오는 연무로 대기질 오염이 심각해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6년 연속 수출 성장세가 지속. 월별로도 2개월 연속 300만 달러대를 유지하며 상승

표 2-3 | 공기청정기 수출 상위 5대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9년 연간				2020년 연간				2021년 1월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53.9	9.8	41.6	미국	109.0	102.2	46.8	미국	5.2	-30.4	31.4
2	말레이시아	33.4	57.8	25.8	말레이시아	44.4	32.9	19.1	말레이시아	3.9	32.5	23.6
3	대만	10.9	-20.0	8.4	대만	12.6	15.1	5.4	네덜란드	1.9	750.8	11.3
4	중국	6.4	-36.3	4.9	네덜란드	9.0	674.9	3.9	대만	1.4	67.1	8.8
5	태국	3.7	407.2	2.9	홍콩	8.1	166.6	3.5	태국	0.6	82.9	3.7

자료 : IITP, KTSPI



## □ 미·중 연초부터 설전을 벌이며 팽팽한 신경전이 고조, 양국 관계의 향방에도 주목

-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美·中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지며 주도권 싸움이 지속되는 양상
  - 중국의 명절 춘제 연휴 첫날이자 바이든 취임 이후 3주 만인 2.11일 미·중 간 첫 통화가 성사. 美는 불공정 무역, 홍콩 및 신장의 인권, 대만 문제 등의 이슈를 모두 언급하며 中을 압박
  - 이는 前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해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내정 간섭이라 강력히 반발해 미·중 갈등 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양상
    - ※ 시 주석은 미·중 간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바탕에서만 대화·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며 홍콩·대만·무역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
  - 이어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코로나19 발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하라며 이전 정부에 이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제기도 지속
    -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로나19 기원을 찾고 있는 WHO 조사팀이 중국에 초기 발병 사례에 대한 원시 데이터(raw data), 맞춤형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관측
  - 다만 양국은 상호이익이 얽혀 있는 무역 등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협력 여지를 남겨둬 향후 귀추에 주목
- 주요 핵심문제에 대한 양국 의견차는 여전하나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 조짐이 기대
  - 中은 바이든 취임 직후 첫 한 주 동안 미국산 옥수수 586만 톤을 수입하며 우호적 성의를 피력, 바이든도 중국 IT 업체에 대한 이전 정책을 점검하며 틱톡 매각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을 무기한 중단
  - 이를 통해 미·중은 홍콩·대만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서로 간의 경제적 실리가 존재하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향후 수정·보완하며 이어질 것으로 관측

**표 2-4 미·중 정상 간 통화 주요 내용**

	미국	중국
홍콩·신장 위구르 인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콩에서의 인권 활동가 탄압,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 대만 포함 인근 지역에서 강경해지는 행동에 대한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는 중국의 내정으로 개입해선 안 되며 상호 간 핵심 이익을 존중해 달라 촉구</li> </ul>
국제 및 지역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중 양국 간 충돌을 피하고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li> <li>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해야 한다는 우선순위 확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적 책임과 의무 존재</li> <li>세계 흐름에 순응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li> </ul>
미·중 무역 등 양자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한 기본적 우려</li> <li>중국이 미국인과 미국 등의 이익을 증진할 때 실용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할 것을 약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미 협력이 양측의 유일한 정확한 선택</li> <li>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추진은 양 국민과 국제회의의 공동 희망</li> </ul>
기타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대응, 세계 보건 안보, 기후변화 대응, 대량 살상무기 방지 문제 등</li> </ul>	

자료 : 언론 자료 재인용



## □ 美 조 바이든 신정부는 對중남미 정책 변화로 역내 리더십 선점을 모색할 전망

- 前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일방주의에 기반을 두고 對중남미 정책을 펼쳤으나 바이든 신정부는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접근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응할 방침
-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공세적으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며 중국 활동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
- 이에 따라 변화된 접근 방식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빈곤·반부패 등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환경·디지털경제 등의 새로운 의제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리더십 회복을 도모할 계획
  - ※ 前트럼프 정부의 對중남미 정책은 자국의 핵심 지지층의 관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현안에 집중해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

**표 2-5 | 바이든 신정부의 對중남미 정책 주요 내용**

국가	주요 내용
중미 3개국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겨냥한 억제적 이민 정책에서 탈피해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모색하며 해당 국가에 4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원조를 추진할 예정
멕시코	• 안보협력, USMCA(신북미무역협정)의 환경·노동·공정경쟁 조항 이행 등에서 잡음이 예상되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특히 이민정책 개혁에서 멕시코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미·멕시코 관계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립될 것으로 예상
브라질	• 보우소나루 정부는 상업적 목적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이든 신정부가 환경 부문에서 의지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요구가 강한 브라질에서 지나친 갈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베네수엘라	•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對베네수엘라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제재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
쿠바	•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단절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송금과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피할 것으로 관측

자료 : KIEP, 2020.2. 재인용

## □ EU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 WTO 개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 전략을 추진

- 녹색·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WTO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방침
- EU 집행위는 현재 공정한 경쟁 보장이나 디지털 문제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WTO 규정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WTO 개혁안을 제안하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에 대한 협상 등을 진행할 것이라 선언
- WTO 내 공정성 등과 관련된 신뢰 위기는 조 바이든 美 정부와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발표
- 또한 새 무역 전략 우선순위를 ‘기후변화 대응’으로 두고 향후 무역 합의 시 녹색 경제 전환,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 조치 등을 담는 방안도 제안
-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 정당하지 않은 무역 장벽을 없애고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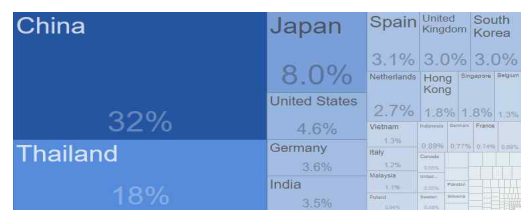
##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되면서 미·중 갈등 악화 가능성 우려

- 미얀마 군부, '20.11월 총선 부정선거를 근거로 쿠데타를 일으키며 실권을 장악(2.1일). 미·중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부각될 전망
  - ※ 미얀마는 중국 남부와 인도양을 접한 지리적 요충지로, 이전까지 중국이 육·해를 통한 실크로드로 독보적 우호 관계를 쌓아왔으나 '11년 미얀마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는 미국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민주화 세력과 관계를 맺으며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을 견제
- **(미국)** 2.2일 미얀마 사태를 “민주주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 비판하며 ‘쿠데타’로 명명. 이어 對미얀마 원조(약 1억 달러) 중단, 군 간부 10명과 3개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 등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
  - ※ 다만 美의 원조는 보건 등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얀마 정부로 유입되는 금액이 극히 적어 군부 압박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도 미얀마 쿠데타 주역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에 동참하며 미얀마 군정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
-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며 동맹국과의 연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구상을 밝힌 만큼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바이든 정부의 첫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
- **(중국)** 반면 美와 다르게 해당 사태는 미얀마 국내 문제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얀마 쿠데타 규탄 성명 결의에 반대해 성명 채택이 불발
- 이는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중국의 실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美의 제재에 대한 악영향으로 미얀마의 친중국화도 우려. 일각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주도자가 거사를 앞두고 중·미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진 점에 대해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의심도 제기
  - ※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에 따르면 '16~'20년 중국의 미얀마 투자액은 35.2억 달러로 미국(3.3억 달러)의 10배 수준. 또한 미얀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약 30% 수준)도 높은 것으로 관측
- 미얀마 군부의 反쿠데타 시위 유혈 진압 등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對미얀마 연대 제재가 점차 확대되면서 군부 vs 민주주의 세력 갈등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

표 2-6 | 미중-미얀마 관계 및 2019년 미얀마의 국가별 수출 비중(매출 기준)

	미국	중국
무역	• 소규모 무역 유지	• 최대 교역국(수출 32% 정도)
투자·자원	• 식량후원 및 선거지원 명목 원조(연간 1.75억 달러)	• 에너지 수송 파이프 연결(연간 원유 1,080만 톤, 천연가스 340만 톤)
외교	• 로힝야족 학살 이유 일부 군부 실세 제재	• 군부와 우호적 관계

(가) 미중-미얀마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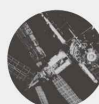
(나) '19년 미얀마 국가별 수출 비중(매출 기준)

자료 : 언론 자료 재인용 / TRADING ECONOMICS



# III

## 부록





## III

## 부록

## 1

##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4,572,047	-8.9	100.0	417,112	8.6	100.0	4,285,865	3.1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218,685	-12.5	70.4	290,885	7.7	69.7	2,984,428	1.3	69.6
- 전자부품	1,963,110	-17.5	42.9	177,231	9.2	42.5	1,791,291	-0.5	41.8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9,625	-18.2	2.2	11,868	17.3	2.8	141,800	58.7	3.3
- 통신 및 방송기기	396,963	-4.5	8.7	34,918	4.8	8.4	376,630	3.5	8.8
- 영상 및 음향기기	92,325	-5.4	2.0	6,902	-10.0	1.7	79,988	-5.4	1.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66,662	0.4	14.6	59,967	5.8	14.4	594,718	-2.1	13.9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70,021	0.4	16.8	68,069	3.8	16.3	726,120	3.0	16.9
- 통신서비스	359,141	-3.7	7.9	30,778	1.0	7.4	335,406	1.6	7.8
· 유선통신서비스	100,746	-4.5	2.2	8,341	0.4	2.0	92,284	-0.1	2.2
· 무선통신서비스	235,632	-3.6	5.2	20,614	1.5	4.9	223,026	2.8	5.2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762	0.2	0.5	1,824	-1.1	0.4	20,095	-3.8	0.5
- 방송서비스	191,824	2.5	4.2	16,326	1.5	3.9	178,872	2.4	4.2
· 지상파방송서비스	37,539	-1.4	0.8	3,113	0.7	0.7	31,207	-8.1	0.7
· 유료방송서비스	63,184	3.9	1.4	5,836	4.4	1.4	62,659	8.8	1.5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0,556	3.3	2.0	7,325	-0.3	1.8	84,521	2.2	2.0
· 기타방송서비스	545	2.4	0.0	53	5.9	0.0	485	-0.9	0.0
- 정보서비스	219,057	5.9	4.8	20,964	10.0	5.0	211,842	5.8	4.9
· 정보인프라서비스	39,143	-1.2	0.9	3,170	-8.5	0.8	34,990	-2.2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179,914	7.6	3.9	17,794	14.1	4.3	176,853	7.5	4.1
○ 소프트웨어	583,342	2.1	12.8	58,158	19.9	13.9	575,317	13.8	13.4
- 패키지 소프트웨어	103,567	0.4	2.3	9,225	0.8	2.2	89,724	1.1	2.1
- 게임 소프트웨어	123,016	3.7	2.7	12,234	32.5	2.9	135,654	24.0	3.2
- IT 서비스	356,759	2.1	7.8	36,698	21.8	8.8	349,938	13.9	8.2

자료 : KEA, KAIT, 2021.2.

## 2 2021년 1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년	5,478.7	1,552.4	-0.9	5,195.8	779.5	-4.4	282.9	772.8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7.9	1,835.8	3.8	4,675.5	1,126.3	3.9	452.4	709.5
1/4분기	1,301.9	430.9	0.4	1,214.9	259.8	0.4	87.0	171.1
2/4분기	1,103.4	417.3	-5.8	1,083.6	267.8	-3.3	19.8	149.6
3/4분기	1,301.3	478.2	5.2	1,140.3	286.2	4.7	161.0	192.0
4/4분기	1,421.3	509.4	15.3	1,236.6	312.5	13.8	184.7	196.9
상반기	2,405.3	848.2	-2.8	2,298.6	527.6	-1.6	106.7	320.7
하반기	2,722.6	987.5	10.2	2,376.9	598.7	9.3	345.7	388.9
<b>1월</b>	<b>431.1</b>	<b>134.0</b>	<b>-7.2</b>	<b>427.1</b>	<b>88.3</b>	<b>-6.1</b>	<b>4.0</b>	<b>45.7</b>
2월	409.1	137.0	8.2	369.9	77.0	5.7	39.3	60.0
3월	461.7	159.9	1.1	417.9	94.5	2.8	43.7	65.5
4월	362.7	128.7	-15.3	379.3	88.7	-6.4	-16.6	40.0
5월	348.5	139.2	-2.7	346.5	89.3	-7.7	2.0	49.9
6월	392.2	149.5	0.9	357.9	89.8	5.0	34.3	59.7
7월	427.9	149.8	3.3	388.4	98.6	1.2	39.5	51.2
8월	394.9	152.2	0.2	358.0	92.0	4.4	36.9	60.2
9월	478.6	176.2	11.8	393.9	95.7	9.1	84.7	80.5
10월	448.8	163.9	5.9	390.9	102.2	9.3	57.9	61.7
11월	458.4	165.6	15.8	399.4	103.7	14.2	59.0	61.9
12월	514.1	179.8	24.9	446.4	106.5	18.2	67.7	73.3
2021년	480.1	163.0	21.7	440.5	107.4	21.7	39.6	55.5
<b>1월</b>	<b>480.1</b>	<b>163.0</b>	<b>21.7</b>	<b>440.5</b>	<b>107.4</b>	<b>21.7</b>	<b>39.6</b>	<b>55.5</b>

자료 : IITP, KTSPI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76,859	-19.7	100.0	183,579	3.8	100.0	16,299	21.7	100.0
○ 전자부품	126,787	-23.6	71.7	131,088	3.4	71.4	11,825	22.5	72.6
- 반도체	95,156	-25.7	53.8	100,251	5.4	54.6	8,780	20.5	53.9
· 메모리반도체	62,995	-33.0	35.6	63,929	1.5	34.8	5,318	24.9	32.6
· 시스템반도체	25,696	-2.9	14.5	30,263	17.8	16.5	2,910	16.0	17.9
- 디스플레이	21,837	-21.3	12.3	20,715	-5.1	11.3	2,073	32.1	12.7
- 전자관	5	-31.5	0.0	4	-11.6	0.0	0	-9.5	0.0
- 수동부품	1,907	-6.9	1.1	2,031	6.5	1.1	201	40.4	1.2
PCB	4,801	-3.9	2.7	5,033	4.8	2.7	461	12.0	2.8
- 접속부품	2,861	0.7	1.6	2,863	0.1	1.6	290	28.1	1.8
- 기타전자부품	159	-11.7	0.1	132	-17.0	0.1	13	0.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087	-19.4	5.1	13,910	53.1	7.6	993	2.6	6.1
- 컴퓨터	1,978	28.7	1.1	2,060	4.1	1.1	162	23.4	1.0
- 주변기기	7,109	-27.0	4.0	11,850	66.7	6.5	831	-0.7	5.1
· 디스플레이장치	951	-16.7	0.5	583	-38.7	0.3	43	-43.9	0.3
· 프린터(부분품포함)	432	-19.7	0.2	362	-16.1	0.2	32	20.0	0.2
· 보조기억장치	5,055	-29.8	2.9	10,107	100.0	5.5	705	1.9	4.3
○ 통신 및 방송기기	14,437	-17.9	8.2	13,715	-5.0	7.5	1,392	59.0	8.5
- 통신기기	14,049	-18.1	7.9	13,246	-5.7	7.2	1,349	59.9	8.3
· 유선통신기기	833	-13.1	0.5	825	-1.0	0.4	55	-6.2	0.3
· 무선통신기기	13,216	-18.4	7.5	12,421	-6.0	6.8	1,294	64.8	7.9
휴대폰(부분품 포함)	11,983	-17.9	6.8	11,266	-6.0	6.1	1,196	76.3	7.3
- 방송용 장비	388	-9.0	0.2	469	21.0	0.3	43	35.0	0.3
○ 영상 및 음향기기	4,438	44.1	2.5	2,626	-40.8	1.4	182	-26.7	1.1
- 영상기기	3,440	67.1	1.9	1,783	-48.1	1.0	108	-38.2	0.7
· TV	3,057	85.8	1.7	1,473	-51.8	0.8	78	-46.7	0.5
LCD TV	379	-15.3	0.2	198	-47.6	0.1	2	-93.3	0.0
TV 부분품	2,576	151.1	1.5	1,165	-54.8	0.6	75	-28.0	0.5
· 셋탑박스	22	-43.4	0.0	13	-38.9	0.0	2	2,219.4	0.0
- 음향기기	959	-1.0	0.5	802	-16.3	0.4	71	1.7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9	-24.0	0.0	40	2.2	0.0	3	-16.0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110	-1.2	12.5	22,240	0.6	12.1	1,906	15.7	11.7
-가정용전기기기	3,603	1.0	2.0	4,198	16.5	2.3	380	49.1	2.3
-사무용기기	328	24.6	0.2	342	4.0	0.2	26	-23.3	0.2
-의료용기기	2,133	2.3	1.2	2,057	-3.5	1.1	170	13.8	1.0
-전기 장비	10,521	0.8	5.9	10,435	-0.8	5.7	880	10.3	5.4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536	2.7	4.3	7,614	1.0	4.1	636	9.8	3.9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08,370	1.2	100.0	112,617	3.9	100.0	10,744	21.7	100.0
○ 전자부품	58,401	-0.4	53.9	61,650	5.6	54.7	5,501	19.0	51.2
- 반도체	47,399	5.5	43.7	50,634	6.8	45.0	4,559	21.0	42.4
· 메모리반도체	19,307	18.7	17.8	18,887	-2.2	16.8	1,534	19.4	14.3
· 시스템반도체	20,765	-3.0	19.2	24,649	18.7	21.9	2,377	25.7	22.1
- 디스플레이	4,150	-38.5	3.8	3,817	-8.0	3.4	261	-12.9	2.4
- 전자관	41	-37.1	0.0	56	34.6	0.0	4	-22.9	0.0
- 수동부품	1,978	-3.4	1.8	2,230	12.8	2.0	206	23.1	1.9
PCB	2,257	1.3	2.1	2,364	4.8	2.1	230	28.3	2.1
- 접속부품	2,217	-0.7	2.0	2,169	-2.1	1.9	203	16.1	1.9
- 기타전자부품	274	-0.8	0.3	287	4.6	0.3	31	29.6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519	-10.4	10.6	13,422	16.5	11.9	1,585	31.3	14.8
- 컴퓨터	6,940	4.9	6.4	7,953	14.6	7.1	1,036	40.0	9.6
- 주변기기	4,579	-26.5	4.2	5,469	19.4	4.9	549	17.6	5.1
· 디스플레이장치	730	-1.8	0.7	876	19.9	0.8	107	16.8	1.0
· 프린터(부분품포함)	882	-4.9	0.8	866	-1.9	0.8	86	9.3	0.8
· 보조기억장치	1,984	-43.1	1.8	2,669	34.5	2.4	241	15.3	2.2
○ 통신 및 방송기기	15,418	10.8	14.2	14,505	-5.9	12.9	1,617	35.3	15.0
- 통신기기	15,066	10.5	13.9	14,029	-6.9	12.5	1,573	35.1	14.6
· 유선통신기기	2,147	20.4	2.0	1,914	-10.8	1.7	169	17.7	1.6
· 무선통신기기	12,919	9.0	11.9	12,115	-6.2	10.8	1,404	37.5	13.1
휴대폰(부분품 포함)	9,943	-1.0	9.2	9,065	-8.8	8.0	1,082	38.2	10.1
- 방송용 장비	352	26.7	0.3	476	35.1	0.4	44	43.3	0.4
○ 영상 및 음향기기	4,568	51.2	4.2	3,377	-26.1	3.0	329	2.1	3.1
- 영상기기	3,234	121.3	3.0	2,142	-33.8	1.9	212	-2.3	2.0
· TV	2,688	185.8	2.5	1,600	-40.5	1.4	177	0.8	1.6
LCD TV	600	-3.0	0.6	664	10.7	0.6	90	47.2	0.8
TV 부분품	1,995	819.9	1.8	819	-59.0	0.7	56	-47.9	0.5
· 셋탑박스	164	26.1	0.2	192	17.1	0.2	11	-26.6	0.1
- 음향기기	1,069	-11.4	1.0	1,003	-6.2	0.9	92	0.5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265	-24.9	0.2	232	-12.4	0.2	25	79.8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8,464	-1.3	17.0	19,663	6.5	17.5	1,712	15.5	15.9
-가정용전기기기	3,603	3.1	3.3	3,945	9.5	3.5	329	10.6	3.1
-사무용기기	44	24.8	0.0	32	-28.5	0.0	3	-20.5	0.0
-의료용기기	2,095	7.7	1.9	2,182	4.1	1.9	171	3.2	1.6
-전기 장비	5,326	-7.9	4.9	5,899	10.8	5.2	590	24.1	5.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2,252	2.2	2.1	2,524	12.1	2.2	229	15.0	2.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176,859	108,370	68,488	183,579	112,617	70,962	16,299	10,744	5,555
○ 전자부품	126,787	58,401	68,385	131,088	61,650	69,438	11,825	5,501	6,324
- 반도체	95,156	47,399	47,757	100,251	50,634	49,617	8,780	4,559	4,221
· 메모리반도체	62,995	19,307	43,687	63,929	18,887	45,042	5,318	1,534	3,783
· 시스템반도체	25,696	20,765	4,931	30,263	24,649	5,614	2,910	2,377	533
- 디스플레이	21,837	4,150	17,687	20,715	3,817	16,899	2,073	261	1,812
- 전자관	5	41	-37	4	56	-52	0	4	-4
- 수동부품	1,907	1,978	-70	2,031	2,230	-199	201	206	-4
PCB	4,801	2,257	2,544	5,033	2,364	2,669	461	230	231
- 접속부품	2,861	2,217	645	2,863	2,169	694	290	203	88
- 기타전자부품	159	274	-115	132	287	-154	13	31	-18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087	11,519	-2,432	13,910	13,422	488	993	1,585	-592
- 컴퓨터	1,978	6,940	-4,961	2,060	7,953	-5,892	162	1,036	-874
- 주변기기	7,109	4,579	2,530	11,850	5,469	6,381	831	549	283
· 디스플레이장치	951	730	221	583	876	-292	43	107	-64
· 프린터(부분품포함)	432	882	-450	362	866	-503	32	86	-54
· 보조기억장치	5,055	1,984	3,071	10,107	2,669	7,439	705	241	464
○ 통신 및 방송기기	14,437	15,418	-981	13,715	14,505	-790	1,392	1,617	-225
- 통신기기	14,049	15,066	-1,017	13,246	14,029	-783	1,349	1,573	-224
· 유선통신기기	833	2,147	-1,314	825	1,914	-1,089	55	169	-114
· 무선통신기기	13,216	12,919	297	12,421	12,115	306	1,294	1,404	-110
휴대폰(부분품 포함)	11,983	9,943	2,040	11,266	9,065	2,201	1,196	1,082	114
- 방송용 장비	388	352	35	469	476	-7	43	44	-1
○ 영상 및 음향기기	4,438	4,568	-130	2,626	3,377	-751	182	329	-147
- 영상기기	3,440	3,234	205	1,783	2,142	-359	108	212	-104
· TV	3,057	2,688	369	1,473	1,600	-127	78	177	-98
LCD TV	379	600	-221	198	664	-465	2	90	-88
TV 부분품	2,576	1,995	581	1,165	819	346	75	56	19
· 셋탑박스	22	164	-142	13	192	-178	2	11	-8
- 음향기기	959	1,069	-110	802	1,003	-200	71	92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39	265	-226	40	232	-192	3	25	-23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110	18,464	3,646	22,240	19,663	2,577	1,906	1,712	194
-가정용전기기기	3,603	3,603	0	4,198	3,945	253	380	329	51
-사무용기기	328	44	284	342	32	310	26	3	23
-의료용기기	2,133	2,095	38	2,057	2,182	-125	170	171	-1
-전기 장비	10,521	5,326	5,195	10,435	5,899	4,536	880	590	29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536	2,252	5,285	7,614	2,524	5,090	636	229	407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76,859	-19.7	100.0	183,579	3.8	100.0	16,299	21.7	100.0
○ 아시아	137,242	-22.0	77.6	141,705	3.3	77.2	12,748	23.5	78.2
- 중국(홍콩포함)	86,776	-27.3	49.1	86,877	0.1	47.3	7,413	23.7	45.5
- 일 본	4,112	-5.3	2.3	3,902	-5.1	2.1	338	4.2	2.1
- ASEAN	37,540	-9.6	21.2	40,527	8.0	22.1	3,857	15.5	23.7
· 싱가포르	2,870	-16.6	1.6	3,231	12.6	1.8	275	6.9	1.7
· 인 니	857	-3.2	0.5	779	-9.2	0.4	67	8.0	0.4
· 말 련	2,036	3.9	1.2	2,102	3.2	1.1	185	-2.4	1.1
· 태 국	1,116	-7.2	0.6	1,130	1.3	0.6	102	18.5	0.6
· 베트남	27,163	-2.6	15.4	29,778	9.6	16.2	2,949	18.9	18.1
- 대 만	5,663	-26.2	3.2	7,937	40.2	4.3	876	118.6	5.4
- 인 도	2,809	2.9	1.6	2,222	-20.9	1.2	250	4.1	1.5
○ 북미	19,255	-11.0	10.9	22,815	18.5	12.4	1,956	24.1	12.0
- 미 국	18,375	-10.5	10.4	22,130	20.4	12.1	1,902	23.9	11.7
- 캐나다	784	-19.3	0.4	589	-24.9	0.3	45	43.2	0.3
○ 유럽	12,000	-8.9	6.8	12,566	4.7	6.8	1,044	9.1	6.4
- EU	10,736	-9.2	6.1	11,248	4.8	6.1	902	10.0	5.5
· 영 국	572	18.4	0.3	2,890	3.0	1.6	272	20.1	1.7
· 독 일	2,805	-17.5	1.6	595	-29.0	0.3	46	-19.6	0.3
· 프랑스	838	-9.6	0.5	328	14.2	0.2	31	26.1	0.2
· 이탈리아	287	-9.9	0.2	846	48.0	0.5	49	12.2	0.3
- 러시아	694	8.9	0.4	725	4.5	0.4	50	-5.3	0.3
○ 중동	1,946	-18.0	1.1	1,682	-13.6	0.9	127	-18.2	0.8
- 사우디	233	-17.3	0.1	238	2.0	0.1	18	8.0	0.1
- UAE	497	-10.3	0.3	569	14.4	0.3	36	-39.5	0.2
○ 중남미	5,307	-10.7	3.0	3,807	-28.3	2.1	354	12.2	2.2
- 브라질	1,739	-12.2	1.0	1,449	-16.7	0.8	144	18.7	0.9
- 멕시코	2,782	-15.5	1.6	2,103	-24.4	1.1	186	11.1	1.1
- 칠 레	81	-14.6	0.0	80	-1.2	0.0	8	-12.1	0.0
○ 대양주	747	-1.0	0.4	711	-4.8	0.4	50	6.5	0.3
- 호 주	669	1.1	0.4	634	-5.2	0.3	43	5.7	0.3
○ 아프리카	352	-28.2	0.2	281	-20.1	0.2	19	-30.2	0.1
※ 브릭 스	66,855	-23.1	37.8	67,231	0.6	36.6	5,952	25.4	36.5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08,370	1.2	100.0	112,617	3.9	100.0	10,744	21.7	100.0
○ 아시아	88,220	0.6	81.4	93,149	5.6	82.7	9,283	26.1	86.4
- 중국(홍콩포함)	46,832	2.0	43.2	47,293	1.0	42.0	3,929	1.6	36.6
- 일 본	10,034	-7.8	9.3	10,423	3.9	9.3	929	33.1	8.6
- ASEAN	19,983	6.0	18.4	20,439	2.3	18.1	1,840	3.1	17.1
· 싱가포르	2,943	-11.6	2.7	3,859	31.1	3.4	245	-36.4	2.3
· 인 니	425	0.8	0.4	474	11.7	0.4	70	103.5	0.7
· 말 련	3,214	-5.2	3.0	3,267	1.7	2.9	247	-12.4	2.3
· 태 국	1,353	-0.5	1.2	1,543	14.0	1.4	151	27.4	1.4
· 베트남	9,848	15.1	9.1	9,725	-1.3	8.6	1,009	23.6	9.4
- 대 만	11,267	-5.6	10.4	13,458	19.4	12.0	1,266	26.3	11.8
- 인 도	97	-10.8	0.1	79	-18.4	0.1	5	-28.4	0.0
○ 북미	9,002	0.3	8.3	8,353	-7.2	7.4	782	11.7	7.3
- 미 국	8,665	0.4	8.0	8,018	-7.5	7.1	753	10.9	7.0
- 캐나다	224	3.4	0.2	235	5.0	0.2	19	43.8	0.2
○ 유럽	7,422	5.8	6.8	7,001	-5.7	6.2	504	-6.0	4.7
- EU	6,996	5.6	6.5	6,584	-5.9	5.8	440	-6.7	4.1
· 영 국	531	1.7	0.5	2,927	5.6	2.6	219	13.9	2.0
· 독 일	2,772	-5.8	2.6	749	-2.9	0.7	44	-44.1	0.4
· 프랑스	771	6.5	0.7	353	4.7	0.3	31	9.3	0.3
· 이탈리아	337	7.2	0.3	513	-3.3	0.5	34	-7.3	0.3
- 러시아	18	3.8	0.0	21	15.0	0.0	1	-7.8	0.0
○ 중동	450	-27.4	0.4	544	21.0	0.5	91	167.7	0.8
- 사우디	0	-78.9	0.0	2	306.5	0.0	1	208.6	0.0
- UAE	72	-15.7	0.1	73	0.5	0.1	4	5.8	0.0
○ 중남미	902	15.7	0.8	886	-1.7	0.8	77	16.4	0.7
- 브라질	9	-33.2	0.0	10	12.6	0.0	0	-45.2	0.0
- 멕시코	880	15.7	0.8	866	-1.6	0.8	76	17.6	0.7
- 칠 레	3	82.8	0.0	1	-59.4	0.0	0	-79.9	0.0
○ 대양주	141	34.1	0.1	91	-35.5	0.1	7	3.7	0.1
- 호 주	98	35.0	0.1	62	-37.4	0.1	5	-3.8	0.0
○ 아프리카	59	3.4	0.1	54	-9.6	0.0	1	-75.8	0.0
※ 브릭스	45,669	2.1	42.1	46,479	1.8	41.3	3,897	2.0	36.3

자료 : IITP, KTSPI

**표 3-8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세계	176,859	108,370	68,488	183,579	112,617	70,962	16,299	10,744	5,555
○ 아시아	137,242	88,220	49,022	141,705	93,149	48,556	12,748	9,283	3,465
- 중국(홍콩포함)	86,776	46,832	39,944	86,877	47,293	39,584	7,413	3,929	3,484
- 일 본	4,112	10,034	-5,922	3,902	10,423	-6,521	338	929	-591
- ASEAN	37,540	19,983	17,557	40,527	20,439	20,088	3,857	1,840	2,017
· 싱가포르	2,870	2,943	-72	3,231	3,859	-628	275	245	30
· 인 니	857	425	433	779	474	304	67	70	-3
· 말 련	2,036	3,214	-1,179	2,102	3,267	-1,166	185	247	-62
· 태 국	1,116	1,353	-237	1,130	1,543	-413	102	151	-49
· 베트남	27,163	9,848	17,315	29,778	9,725	20,053	2,949	1,009	1,941
- 대 만	5,663	11,267	-5,604	7,937	13,458	-5,521	876	1,266	-390
- 인 도	2,809	97	2,712	2,222	79	2,143	250	5	244
○ 북미	19,255	9,002	10,253	22,815	8,353	14,463	1,956	782	1,174
- 미 국	18,375	8,665	9,710	22,130	8,018	14,111	1,902	753	1,149
- 캐나다	784	224	560	589	235	354	45	19	26
○ 유럽	12,000	7,422	4,578	12,566	7,001	5,566	1,044	504	539
- EU	10,736	6,996	3,740	11,248	6,584	4,664	902	440	462
· 영 국	572	531	41	2,890	2,927	-37	272	219	53
· 독 일	2,805	2,772	33	595	749	-154	46	44	2
· 프랑스	838	771	66	328	353	-25	31	31	0
· 이탈리아	287	337	-50	846	513	332	49	34	15
- 러시아	694	18	676	725	21	704	50	1	49
○ 중동	1,946	450	1,497	1,682	544	1,137	127	91	36
- 사우디	233	0	232	238	2	236	18	1	18
- UAE	497	72	425	569	73	496	36	4	32
○ 중남미	5,307	902	4,405	3,807	886	2,920	354	77	278
- 브라질	1,739	9	1,730	1,449	10	1,439	144	0	144
- 멕시코	2,782	880	1,901	2,103	866	1,237	186	76	110
- 칠 레	81	3	78	80	1	79	8	0	8
○ 대양주	747	141	606	711	91	621	50	7	43
- 호 주	669	98	570	634	62	572	43	5	38
○ 아프리카	352	59	292	281	54	227	19	1	18
※ 브릭 스	66,855	45,669	21,186	67,231	46,479	20,752	5,952	3,897	2,055

자료 : IITP, KTSPI



##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9,345	-0.3	100.0	923	16.9	100.0	5,081	-0.3	100.0
○ 전자부품	2,424	3.8	25.9	234	8.5	25.3	1,373	0.9	27.0
- 반도체	1,722	6.1	18.4	169	10.5	18.3	997	3.6	19.6
- 디스플레이 패널	258	2.6	2.8	23	-0.8	2.5	128	-14.1	2.5
- 전자관	1	-27.5	0.0	0	-18.1	0.0	0	-38.9	0.0
- 수동부품	83	-13.7	0.9	9	30.0	1.0	53	13.6	1.0
- PCB	147	-4.1	1.6	13	0.7	1.4	78	-4.1	1.5
- 접속부품	189	2.3	2.0	18	3.8	1.9	103	-3.3	2.0
- 기타 전자부품	25	-3.8	0.3	2	-13.9	0.2	13	-8.1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33	-3.5	19.6	183	16.5	19.8	1,044	1.2	20.5
- 컴퓨터	1,201	-3.8	12.8	127	20.7	13.7	705	4.4	13.9
- 주변기기	633	-2.9	6.8	56	7.9	6.1	338	-4.8	6.7
· 디스플레이장치	158	2.6	1.7	14	-2.4	1.5	84	-5.3	1.7
· 프린터(부품포함)	157	-8.3	1.7	11	-17.4	1.2	71	-23.4	1.4
· 보조기억장치	173	-3.0	1.8	15	13.0	1.6	97	1.6	1.9
· 저장 매체	34	6.5	0.4	3	-7.5	0.3	17	-8.1	0.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11	-4.6	1.2	14	64.2	1.5	70	15.3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372	-6.8	25.4	207	21.3	22.4	1,148	-3.4	22.6
- 통신기기	2,274	-6.7	24.3	197	21.6	21.3	1,098	-3.2	21.6
· 유선통신기기	484	9.0	5.2	42	12.4	4.5	245	-2.8	4.8
· 무선통신기기	1,790	-10.2	19.2	155	24.3	16.8	853	-3.3	16.8
- 방송국용 기기	98	-9.2	1.0	10	15.7	1.1	50	-7.3	1.0
○ 영상 및 음향기기	639	-5.6	6.8	64	4.7	6.9	298	-12.5	5.9
- 영상기기	323	-8.0	3.5	32	16.0	3.4	165	-7.1	3.2
- 음향기기	209	-2.2	2.2	23	32.0	2.5	100	-6.8	2.0
- 기타 영상음향기기	106	-4.8	1.1	9	-44.2	1.0	33	-40.8	0.6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2,078	8.2	22.2	236	27.1	25.6	1,219	3.9	24.0
- 가정용 기기	769	5.7	8.2	88	29.3	9.6	459	2.7	9.0
- 사무용 기기	44	6.8	0.5	4	-5.4	0.4	22	-12.7	0.4
- 의료용 기기	113	23.1	1.2	18	83.0	1.9	92	49.8	1.8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97	12.6	2.1	22	20.4	2.3	128	14.9	2.5
- 전기 장비	955	8.0	10.2	105	21.8	11.4	519	-2.0	10.2
· 건전지 및 축전지	206	11.8	2.2	22	24.7	2.4	120	6.4	2.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183	-3.5	100.0	563	4.9	100.0	3,520	5.0	100.0
○ 전자부품	4,297	-3.8	69.5	405	8.0	72.0	2,517	7.2	71.5
- 반도체	3,536	-2.5	57.2	337	9.7	59.9	2,107	9.7	59.9
- 디스플레이 패널	317	-6.1	5.1	27	-4.2	4.8	161	-12.8	4.6
- 전자관	2	-6.6	0.0	0	-9.9	0.0	1	-11.8	0.0
- 수동부품	146	-17.9	2.4	16	26.1	2.8	91	15.4	2.6
- PCB	113	-9.1	1.8	9	-12.5	1.6	57	-4.1	1.6
- 접속부품	179	-8.1	2.9	16	-2.9	2.8	98	-2.4	2.8
- 기타 전자부품	5	-22.7	0.1	0	-7.7	0.1	2	-10.9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21	-3.2	6.8	38	-1.2	6.7	244	3.1	6.9
- 컴퓨터	32	-31.8	0.5	2	-36.7	0.4	15	-21.6	0.4
- 주변기기	389	0.3	6.3	36	2.3	6.3	229	5.3	6.5
· 디스플레이장치	8	28.5	0.1	1	9.8	0.2	4	-1.2	0.1
· 프린터(부품포함)	65	-8.8	1.1	5	-17.9	0.9	30	-22.3	0.9
· 보조기억장치	228	1.2	3.7	21	5.5	3.8	141	12.5	4.0
· 저장 매체	43	-4.6	0.7	4	-5.1	0.7	24	-1.7	0.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5	12.7	0.7	5	23.9	0.8	29	20.1	0.8
○ 통신 및 방송기기	473	-13.2	7.7	29	-24.9	5.2	209	-11.1	5.9
- 통신기기	439	-12.2	7.1	27	-24.6	4.8	197	-8.4	5.6
· 유선통신기기	66	6.8	1.1	6	-1.0	1.0	33	-5.9	0.9
· 무선통신기기	373	-14.9	6.0	21	-29.2	3.8	164	-8.9	4.6
- 방송국용 기기	34	-24.7	0.6	2	-29.4	0.4	12	-40.1	0.3
○ 영상 및 음향기기	175	-1.7	2.8	16	29.2	2.9	96	26.0	2.7
- 영상기기	120	-4.5	1.9	11	39.5	2.0	69	40.3	2.0
- 음향기기	49	-0.7	0.8	4	15.0	0.8	25	3.7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6	88.5	0.1	0	-22.5	0.1	3	-23.2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16	4.7	13.2	74	4.0	13.2	454	-0.9	12.9
- 가정용 기기	181	1.4	2.9	16	5.3	2.9	99	-3.0	2.8
- 사무용 기기	5	-10.3	0.1	0	-6.2	0.1	3	-15.3	0.1
- 의료용 기기	106	17.9	1.7	9	-2.5	1.6	60	3.5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38	7.0	5.5	32	5.1	5.7	193	1.5	5.5
- 전기 장비	186	-1.8	3.0	17	4.7	3.0	99	-5.2	2.8
· 건전지 및 축전지	68	-7.4	1.1	6	12.5	1.1	37	-3.9	1.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663	-2.0	100.0	232	5.4	100.0	2,486	-6.6	100.0
○ 전자부품	870	-2.3	32.7	77	8.8	33.0	848	-2.4	34.1
- 반도체	645	-0.1	24.2	58	8.7	25.1	643	-0.3	25.9
- 디스플레이 패널	32	-4.6	1.2	3	16.5	1.3	31	-0.3	1.3
- 전자관	3	15.0	0.1	0	42.3	0.1	3	-1.0	0.1
- 수동부품	31	-14.8	1.2	3	21.3	1.2	31	-0.5	1.2
- PCB	13	-19.5	0.5	1	13.1	0.6	12	-4.0	0.5
- 접속부품	143	-6.3	5.4	11	3.4	4.5	125	-12.4	5.0
- 기타 전자부품	3	-12.7	0.1	0	-12.3	0.1	2	-18.3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65	-2.8	13.7	34	5.1	14.7	357	-2.3	14.4
- 컴퓨터	155	-0.4	5.8	15	1.4	6.5	153	-1.7	6.1
- 주변기기	210	-4.5	7.9	19	8.2	8.2	204	-2.8	8.2
· 디스플레이장치	18	1.2	0.7	1	-5.5	0.6	15	-16.8	0.6
· 프린터(부품포함)	43	-3.5	1.6	3	0.1	1.4	33	-22.5	1.3
· 보조기억장치	53	-12.9	2.0	4	-12.7	1.7	51	-4.2	2.0
· 저장 매체	46	-1.1	1.7	6	38.8	2.6	61	31.3	2.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0	-0.4	1.9	4	11.2	1.9	44	-10.6	1.8
○ 통신 및 방송기기	380	-4.2	14.3	37	9.7	15.9	334	-12.1	13.5
- 통신기기	350	-3.9	13.1	35	9.4	14.9	310	-11.5	12.5
· 유선통신기기	179	-5.9	6.7	15	-6.1	6.5	161	-10.1	6.5
· 무선통신기기	171	-1.6	6.4	20	25.2	8.4	149	-12.9	6.0
- 방송국용 기기	30	-8.2	1.1	2	14.5	1.0	25	-19.1	1.0
○ 영상 및 음향기기	101	-7.9	3.8	8	9.2	3.3	84	-16.1	3.4
- 영상기기	46	-8.3	1.7	3	5.0	1.3	33	-27.7	1.3
- 음향기기	41	-3.8	1.5	3	1.2	1.4	37	-8.9	1.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4	-17.4	0.5	2	42.0	0.7	14	2.1	0.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47	0.3	35.6	77	0.2	33.1	862	-9.0	34.7
- 가정용 기기	132	-1.0	4.9	11	-0.1	4.5	120	-8.4	4.8
- 사무용 기기	11	-9.3	0.4	1	-24.5	0.3	9	-18.4	0.3
- 의료용 기기	266	3.7	10.0	23	7.1	10.1	262	-1.7	10.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3	-0.5	11.4	26	-2.4	11.0	277	-8.8	11.1
- 전기 장비	235	-1.3	8.8	17	-3.1	7.2	194	-17.4	7.8
· 건전지 및 축전지	54	3.1	2.0	4	-2.3	1.8	49	-9.9	2.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5,146	-5.2	100.0	502	16.4	100.0	5,218	1.4	100.0
○ 전자부품	866	-9.8	16.8	85	6.9	16.9	893	3.1	17.1
- 반도체	648	-11.0	12.6	66	5.6	13.2	695	7.4	13.3
- 디스플레이 패널	30	-4.6	0.6	3	18.3	0.6	30	0.5	0.6
- 전자관	3	7.8	0.1	0	-27.2	0.1	3	-7.8	0.0
- 수동부품	34	-10.8	0.7	3	21.1	0.6	30	-11.5	0.6
- PCB	19	-12.2	0.4	2	23.2	0.3	17	-6.5	0.3
- 접속부품	127	-4.3	2.5	10	8.6	2.1	113	-11.3	2.2
- 기타 전자부품	6	-3.7	0.1	0	-18.0	0.1	5	-20.3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45	-2.8	24.2	132	26.2	26.2	1,376	10.5	26.4
- 컴퓨터	765	0.7	14.9	87	36.7	17.4	879	14.9	16.8
- 주변기기	481	-7.8	9.3	44	9.6	8.8	497	3.5	9.5
· 디스플레이장치	90	2.9	1.8	8	13.2	1.5	78	-13.7	1.5
· 프린터(부품포함)	144	-6.2	2.8	11	5.9	2.3	117	-18.9	2.2
· 보조기억장치	71	-23.3	1.4	6	-13.3	1.3	85	19.7	1.6
· 저장 매체	110	-2.8	2.1	12	24.4	2.4	145	32.4	2.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5	-11.7	1.3	7	16.2	1.4	72	10.6	1.4
○ 통신 및 방송기기	1,163	-7.7	22.6	107	4.7	21.3	1,082	-7.0	20.7
- 통신기기	1,054	-8.2	20.5	97	4.0	19.3	974	-7.6	18.7
· 유선통신기기	414	-18.0	8.0	38	-3.0	7.5	404	-2.3	7.7
· 무선통신기기	640	-0.4	12.4	59	9.1	11.8	570	-11.0	10.9
- 방송국용 기기	109	-3.1	2.1	10	11.8	2.0	108	-1.5	2.1
○ 영상 및 음향기기	323	-8.7	6.3	37	68.8	7.4	357	10.5	6.8
- 영상기기	171	-6.9	3.3	12	10.5	2.3	161	-5.9	3.1
- 음향기기	102	-1.2	2.0	14	86.0	2.9	122	19.9	2.3
- 기타 영상음향기기	50	-25.3	1.0	11	200.1	2.2	73	47.8	1.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48	-1.5	30.1	141	14.7	28.1	1,510	-2.5	28.9
- 가정용 기기	384	-5.0	7.5	39	35.9	7.8	401	4.5	7.7
- 사무용 기기	28	6.5	0.6	2	-2.9	0.5	24	-14.6	0.5
- 의료용 기기	305	7.1	5.9	28	4.8	5.6	311	1.7	6.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89	-1.1	5.6	25	2.9	5.0	268	-7.2	5.1
- 전기 장비	543	-4.0	10.5	47	14.4	9.3	506	-6.7	9.7
· 건전지 및 축전지	91	1.6	1.8	10	38.4	2.1	105	14.5	2.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19년			2020년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2,537	-6.5	100.0	14,098	4.1	100.0	147,160	-3.5	100.0
○ 전자부품	77,219	-5.5	50.6	7,248	4.5	51.4	77,039	-0.2	52.4
- 반도체	45,537	-3.5	29.9	4,222	5.6	29.9	46,414	1.9	31.5
- 디스플레이 패널	7,872	-13.0	5.2	680	-17.2	4.8	7,314	-7.1	5.0
- 전자관	272	-1.8	0.2	25	-15.6	0.2	261	-4.1	0.2
- 수동부품	8,790	-0.6	5.8	930	16.4	6.6	9,385	6.8	6.4
- PCB	3,012	-12.2	2.0	303	15.0	2.2	2,987	-0.8	2.0
- 접속부품	11,097	-8.8	7.3	1,040	6.5	7.4	10,158	-8.5	6.9
- 기타 전자부품	639	-17.5	0.4	49	-6.2	0.3	520	-18.6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199	-4.3	9.3	1,186	-6.3	8.4	12,449	-12.3	8.5
- 컴퓨터	972	-0.5	0.6	94	-9.4	0.7	993	2.1	0.7
- 주변기기	13,226	-4.6	8.7	1,092	-6.0	7.7	11,456	-13.4	7.8
· 디스플레이장치	1,174	38.8	0.8	108	-13.1	0.8	1,154	-1.7	0.8
· 프린터(부품포함)	9,600	-5.7	6.3	775	-5.5	5.5	8,070	-15.9	5.5
· 보조기억장치	314	-23.3	0.2	14	-49.3	0.1	184	-41.6	0.1
· 저장 매체	1,574	-12.6	1.0	146	3.9	1.0	1,535	-2.5	1.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4	-10.2	0.4	49	-0.6	0.4	514	-8.9	0.3
○ 통신 및 방송기기	7,447	-20.5	4.9	653	1.0	4.6	6,326	-15.0	4.3
- 통신기기	4,466	-22.8	2.9	359	-4.6	2.5	3,765	-15.7	2.6
· 유선통신기기	1,277	-5.3	0.8	101	-9.4	0.7	1,093	-14.4	0.7
· 무선통신기기	3,189	-28.2	2.1	258	-2.5	1.8	2,673	-16.2	1.8
- 방송국용 기기	2,980	-16.8	2.0	294	8.9	2.1	2,561	-14.1	1.7
○ 영상 및 음향기기	5,211	-10.2	3.4	441	18.9	3.1	5,297	1.7	3.6
- 영상기기	2,384	-11.2	1.6	189	-12.2	1.3	1,933	-18.9	1.3
- 음향기기	500	-5.7	0.3	42	-7.7	0.3	447	-10.6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2,327	-10.1	1.5	210	90.9	1.5	2,917	25.4	2.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8,462	-5.7	31.8	4,570	5.8	32.4	46,048	-5.0	31.3
- 가정용 기기	9,779	-7.1	6.4	875	3.2	6.2	9,231	-5.6	6.3
- 사무용 기기	431	-10.0	0.3	32	-13.0	0.2	369	-14.4	0.3
- 의료용 기기	6,021	-2.1	3.9	627	4.6	4.4	5,959	-1.0	4.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9,521	-4.7	12.8	1,794	4.2	12.7	18,067	-7.4	12.3
- 전기 장비	12,710	-7.7	8.3	1,242	11.7	8.8	12,422	-2.3	8.4
· 건전지 및 축전지	6,408	-10.2	4.2	612	14.1	4.3	6,201	-3.2	4.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3,189	-0.9	100.0	13,499	0.3	100.0	148,819	-2.9	100.0
○전자부품	38,814	-7.1	25.3	3,037	-7.2	22.5	36,602	-5.7	24.6
- 반도체	29,986	-7.3	19.6	2,337	-7.6	17.3	28,333	-5.5	19.0
- 디스플레이 패널	1,678	0.8	1.1	144	3.4	1.1	1,684	0.3	1.1
- 전자관	101	-14.6	0.1	17	108.4	0.1	120	19.3	0.1
- 수동부품	1,250	-7.5	0.8	90	-6.0	0.7	1,106	-11.5	0.7
- PCB	1,338	-4.4	0.9	108	-15.3	0.8	1,302	-2.7	0.9
- 접속부품	3,967	-9.6	2.6	297	-9.3	2.2	3,596	-9.4	2.4
- 기타 전자부품	493	-0.3	0.3	43	2.1	0.3	462	-6.1	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851	10.2	16.9	2,491	6.5	18.5	27,890	7.9	18.7
- 컴퓨터	14,611	11.7	9.5	1,549	21.9	11.5	16,943	16.0	11.4
- 주변기기	11,239	8.2	7.3	942	-11.9	7.0	10,947	-2.6	7.4
· 디스플레이장치	1,129	121.0	0.7	133	-1.9	1.0	1,554	37.6	1.0
· 프린터(부품포함)	4,294	2.9	2.8	330	-17.4	2.4	3,794	-11.7	2.5
· 보조기억장치	2,684	-1.5	1.8	160	-35.8	1.2	2,249	-16.2	1.5
· 저장 매체	1,580	-2.8	1.0	130	-12.4	1.0	1,578	-0.1	1.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552	14.9	1.0	189	38.8	1.4	1,773	14.2	1.2
○통신 및 방송기기	31,507	-6.3	20.6	3,162	8.7	23.4	31,277	-0.7	21.0
- 통신기기	28,821	-7.6	18.8	2,912	9.8	21.6	28,805	-0.1	19.4
· 유선통신기기	7,155	9.5	4.7	676	9.4	5.0	7,704	7.7	5.2
· 무선통신기기	21,667	-12.1	14.1	2,236	9.9	16.6	21,101	-2.6	14.2
- 방송국용 기기	2,686	9.5	1.8	250	-3.1	1.8	2,472	-8.0	1.7
○영상 및 음향기기	11,825	2.0	7.7	1,102	-8.0	8.2	11,380	-3.8	7.6
- 영상기기	6,665	5.6	4.4	610	-0.8	4.5	6,316	-5.2	4.2
- 음향기기	3,377	11.0	2.2	297	-8.2	2.2	3,160	-6.4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83	-20.4	1.2	194	-24.9	1.4	1,904	6.7	1.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192	2.6	29.5	3,707	-0.9	27.5	41,669	-7.8	28.0
- 가정용 기기	12,947	1.4	8.5	1,153	10.8	8.5	12,735	-1.6	8.6
- 사무용 기기	862	-5.5	0.6	55	-24.3	0.4	726	-15.7	0.5
- 의료용 기기	7,488	7.9	4.9	556	-3.6	4.1	6,570	-12.3	4.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33	-0.9	6.4	766	-4.8	5.7	8,690	-11.6	5.8
- 전기 장비	14,063	4.1	9.2	1,177	-5.6	8.7	12,948	-7.9	8.7
· 건전지 및 축전지	2,385	14.6	1.6	223	1.2	1.7	2,293	-3.8	1.5

자료 : Uncomtrade, KITA



## 4

##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5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8	53,588	41.4	451,371	62.8	11,238	28.6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14.7
	2020p	53,356	6.4	342,077	-26.1	15,207	18.0
	2018.1/4	12,527	75.9	102,167	77.7	2,863	52.4
	2/4	12,543	84.5	98,533	73.7	2,665	42.5
	3/4	11,321	12.8	98,704	77.8	2,665	41.8
	4/4	17,197	23.4	151,967	41.3	3,045	-2.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7	-6.3	90,801	-36.0	3,191	2.7
	2/4	11,165	6.4	73,821	-34.0	3,572	20.1
	3/4	9,492	0.9	59,016	-39.7	3,763	13.2
	4/4p	20,352	19.3	118,439	6.2	4,681	34.3
직접구매 (수입)	2018	17,921	103.0	99,226	32.1	1,344	118.9
	2019	15,236	-15.0	93,777	-5.5	909	-32.4
	2020p	19,322	26.8	54,979	-41.4	964	6.1
	2018.1/4	5,236	100.6	25,635	37.7	244	110.3
	2/4	3,854	88.6	28,160	79.2	379	351.2
	3/4	4,320	114.1	27,358	43.1	313	219.4
	4/4	4,511	109.0	18,073	-16.7	408	29.1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6	-15.2	24,131	33.5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2	-5.6	14,052	-38.4	227	-0.4
	3/4	7,777	111.9	14,958	-41.2	179	24.3
	4/4p	3,591	-6.1	13,103	-45.7	375	-3.1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6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b>20.1월</b>	<b>149.9</b>	<b>215.4</b>	<b>23.0</b>	<b>34.4</b>	<b>100.6</b>	<b>111.3</b>	<b>33.9</b>	<b>43.2</b>	<b>59.2</b>	<b>73.4</b>	<b>119.5</b>	<b>145.8</b>
2월	156.3	221.8	20.3	30.1	93.3	103.1	36.7	45.8	60.2	74.5	119.1	144.5
3월	182.4	253.4	26.0	37.6	103.1	115.3	41.9	52.3	70.2	85.7	140.4	170.8
4월	151.5	201.2	17.8	26.1	89.3	99.9	40.7	49.1	48.4	57.4	112.1	136.0
5월	170.6	226.2	22.0	34.5	89.5	100.6	43.9	53.6	49.0	57.3	107.1	131.0
6월	173.6	229.8	24.6	38.3	101.6	114.7	47.4	58.2	59.9	70.2	126.1	155.3
7월	164.2	227.2	25.1	37.5	115.8	129.9	51.9	64.3	62.9	70.7	135.6	167.2
8월	173.8	242.8	25.4	36.9	109.8	122.8	51.7	65.3	63.4	72.0	133.1	164.3
9월	196.3	276.2	25.5	35.4	122.6	136.3	54.2	69.3	85.0	96.4	158.7	194.9
10월	175.6	256.7	24.3	32.0	113.6	126.4	47.7	63.8	92.4	104.8	146.3	179.2
11월	174.9	256.8	24.2	30.0	113.4	125.4	54.5	72.8	97.0	111.8	158.6	193.5
12월	192.8	284.4	25.9	31.3	115.5	127.6	57.3	76.5	102.8	117.9	168.7	205.5
<b>21.1월</b>	<b>177.6</b>	<b>257.1</b>	<b>24.4</b>	<b>29.2</b>	<b>118.2</b>	<b>129.9</b>	<b>45.2</b>	<b>60.9</b>	<b>88.7</b>	<b>101.6</b>	<b>148.3</b>	<b>184.2</b>

자료 : 한국은행



**표 3-17**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b>20.1월</b>	<b>121.2</b>	<b>166.0</b>	<b>34.4</b>	<b>45.2</b>	<b>90.3</b>	<b>101.0</b>	<b>148.7</b>	<b>152.7</b>	<b>130.8</b>	<b>149.3</b>	<b>108.6</b>	<b>108.3</b>
2월	126.5	172.8	20.5	26.6	76.8	85.9	89.9	92.9	92.3	105.3	109.5	109.0
3월	132.7	180.3	31.1	38.8	99.4	111.6	144.1	148.9	135.4	155.0	128.6	128.6
4월	116.4	152.6	35.3	44.8	95.3	106.8	145.5	150.1	128.9	154.6	117.2	117.3
5월	125.9	165.5	26.3	34.8	88.1	97.9	137.7	143.3	130.1	155.6	98.6	98.6
6월	125.1	164.4	37.5	49.3	88.8	98.5	129.0	133.0	117.2	141.3	124.0	124.1
7월	145.2	196.7	33.3	41.3	101.4	112.9	128.9	133.1	128.7	161.0	131.4	131.0
8월	143.7	195.1	33.6	40.3	105.8	117.9	121.2	125.5	104.1	129.3	120.8	119.7
9월	145.3	197.2	23.3	26.2	107.1	119.1	135.9	141.1	111.3	138.4	126.4	124.4
10월	152.0	213.9	23.9	25.1	113.3	125.2	133.9	139.7	138.2	168.4	132.1	129.9
11월	148.0	208.2	25.8	25.2	117.8	130.1	147.0	153.1	159.8	192.8	128.5	125.8
12월	148.9	209.5	26.7	25.1	120.8	133.2	170.6	177.3	149.5	179.8	148.0	143.9
<b>21.1월</b>	<b>148.2</b>	<b>207.5</b>	<b>33.5</b>	<b>30.9</b>	<b>119.9</b>	<b>131.6</b>	<b>205.9</b>	<b>214.1</b>	<b>161.8</b>	<b>194.7</b>	<b>148.3</b>	<b>142.0</b>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 과제 책임자 : 김현중
- ⊙ 참여 연구원 : 강희일, 조성선, 박찬선, 최재원,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30, 팩스 : (042) 612-8209